

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공통과목 해설지

화제 중심으로 정보를 재진술시키고, 최대한 납득한다.
내면세계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독해하고 공감한다.



피렐의
국어공작소

생각 워크북 <인문 제재의 지문 읽기>

2027.06 [4~9] 인문 '노비제와 민권 논의' ☆☆

(가) 1문단

①조선 시대의 노비는 주인이 상속·매매할 수 있는 물적 성격을 지녔지만, 재산권 및 소송권 등 자유와 권리도 부분적으로 인정받았다. ②조선 전기에 증가하던 노비의 수는 왜란과 호란 이후에 감소 추세를 보였고, 여러 사정으로 양인과 노비의 신분 격차도 줄어들었다. ③이러한 변화는 노비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이어졌고, 이전에는 찾기 어려운 양반들의 노비에 대한 글로 구체화되었다.

① #정의 제시

조선 시대 '노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노비'는 주인이 상속하거나 매매할 수 있는 존재로 '물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재산권이나 소송권 등 '자유와 권리'도 부분적으로 인정받았다고 해요. 완전히 물건도 아니고, 완전히 자유로운 인간도 아닌 복합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첫 문단의 첫 문장부터 특정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니 확실하게 체크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②~③ #재진술 #화제 제시

이러한 '노비'의 수는 조선 전기에는 증가했지만, 왜란과 호란 이후에는 감소 추세를 보였고 양인과 노비의 신분 격차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적 변화가 '노비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이어졌고, 그 결과 이전에는 찾기 어려웠던 양반들의 '노비에 대한 글'이 등장하기도 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그 수도 줄어들고, 양인과의 신분 격차도 줄어들면서 '노비'가 가지고 있는 '자유와 권리'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앞에서 나온 정의와 엮어서 화제의 흐름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하이라이트 문장

③이러한 변화는 노비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이어졌고, 이전에는 찾기 어려운 양반들의 노비에 대한 글로 구체화되었다.

화제를 제시하는 문장입니다. 이를 정확하게 인식한 상태로 글을 읽을 준비를 해야 해요.

(가) 2문단

①양반들은 노비의 죽음을 애도하거나 행적을 기록한 여러 글을 통해 노비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표면화하였다. ②충성스러운 노비를 충(忠)이라는 성리학적 이념을 투사하여 칭송하였고, 노비를 작고 연약한 존재로 형상화한 시선은 주인이 노비를 대하는 온정적 차원에 머물렀다. ③노비의 의연한 행동과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노비의 불평등한 여건과 처지는 거론하지 않았다. ④빈한한 주인을 위해 희생하는 노비의 애환에 관심을 두면서 노비에 대한 미안한 심경은 드러냈지만 신분 질서를 정면에서 문제 삼지 않았다.

① #재진술 #사례-원리 연결

'양반들의 노비에 대한 글'을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비의 죽음을 애도하거나, 그 행적을 기록한 여러 글들은 확실히 노비를 긍정

적으로 바라본 시각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물적 성격'을 가지는 대상이 아니라, '자유와 권리'를 가진 동등한 인간으로 바라본 것이니까요.

② #사례-원리 연결 #주장 제시

나아가, 충성스러운 노비를 '충'이라는 성리학적 이념을 투사하여 칭송하였고, 노비를 작고 연약한 존재로 형상화하며 주인이 노비를 대하는 '온정적 차원'에 머무는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1번 문장과 같은 맥락으로 읽다 보면, 노비를 칭송하거나 작고 연약한 존재(마치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로 묘사한 것은 양반이 노비를 바라보는 시각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 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문장의 뉘앙스를 고려했을 때, 2번 문장에서는 이러한 양반의 시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온정적 차원에 머물렀다.'는 확실히 부정적인 표현이니까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노비를 칭송한 것도 그저 '충'이라는, 자신들의 성리학적 이념을 투사하여 노비를 바라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이런 뉘앙스 파악도 국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③~④ #사례-원리 연결 #주장 제시 #재진술

계속해서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비의 의연한 행동과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노비의 불평등한 여건과 처지는 거론하지 않았고, 노비에 대해 미안한 심경은 드러냈지만 신분 질서를 건드리지는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비에게 심정적인 공감은 했으나 본질적으로 신분 질서 자체를 바꾸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네요. 결국 다 같은 말이라는 생각으로 정보량을 줄여주셔야 합니다.

하이라이트 문장

②충성스러운 노비를 충(忠)이라는 성리학적 이념을 투사하여 칭송하였고, 노비를 작고 연약한 존재로 형상화한 시선은 주인이 노비를 대하는 온정적 차원에 머물렀다.

이 문장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관성적으로 읽다 보면 계속해서 '양반이 노비를 바라보는 시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오독을 할 수도 있어요.

(가) 3문단

①이러한 양반들의 시각과 달리, 실학자 이익(李瀾)은 다른 각도에서 노비 문제에 접근하였다. ②그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천명(天命), 천체의 운행에 따라 길흉을 짐치는 영역인 성명(星命), 시세(時勢)에 따라 인간의 힘이 참여하는 조명(造命)으로 운명을 나누었다. ③천명과 성명은 인간이 하는 일에 관여하지 않는 자연 이치로 간주하고, 조명은 인간이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빈부, 귀천 등을 바꾸어 가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④그는 조명의 대상을 왕과 고관대작으로 한정했던 이전 학자들의 논의와 달리, 노비를 포함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였다.

①~③ #주장 제시 #수식된 정의 제시 #재진술

'이익'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노비를 온정적으로만 바라보던 양반들과는 다른 각도에서 노비 문제에 접근했다고 합니다. 어떤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생각해야 하는 건 기본이겠죠? 일단 '천명', '성명', '조명'이라는 개념의 정의부터 체크합니다. '천명'과 '성명'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천체의 운행과 같은 것이고 '조명'은 인간의 힘이 참여하는 운

명의 개념이네요. 이 정의를 바탕으로 하면, '천명'과 '성명'은 인간이 하는 일에 관여하지 않는 자연 이치이고 '조명'은 인간이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것이라는 3번 문장의 내용을 어렵지 않게 납득할 수 있겠지요? 결국, 다 같은 말입니다.

④ #주장 제시 #재진술 #비교/대조

'이익'은 이 중에서 '조명'의 대상을 왕과 고관대작으로 한정했던 이전 학자들의 논의와 달리, 노비를 포함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합니다. '이익'은 노비도 자신의 노력으로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라고 본 것입니다. 앞 문단의 양반들이 노비를 온정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데 머물렀다면, '이익'은 노비를 능동적으로 자기 삶을 바꿀 수 있는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차이점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겠지요?

하이라이트 문장

④그는 조명의 대상을 왕과 고관대작으로 한정했던 이전 학자들의 논의와 달리, 노비를 포함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였다.

이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조명'의 대상을 확대했다는 표면적 내용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노비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화제와 엮어서 '이익'의 주장을 정확히 이해한 채로 넘어갈 수 있어야 해요.

(가) 4문단

①그는 사회의 전 구성원이 주어진 상황에서 각자의 노력으로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②신분은 세습이 아닌 개인의 재주와 덕행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 그는, 노비의 매매와 세습을 금지하면 노비가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③이처럼 그는 양반 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나 모두에게 기회를 개방하고자 하였다. ④그에게 인간 삶의 변화는 각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고, 국가의 역할은 조명이 가능한 최소한의 기반을 보장해 주고 결과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었다.

①~③ #주장 제시 #재진술

'이익'은 사회의 '전 구성원'(노비 포함)이 각자의 노력으로 '조명'이라는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앞에서 미리 생각한 내용이지요? 결국 '이익'의 한마디가 재진술되고 있다는 걸 느껴야 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노력에 따른 재주와 덕행에 따라 신분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노비의 매매와 세습을 금지하면 노비들이 노력할 기쁨이 마련될 것이고, 이에 노비가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한 거죠. 이처럼 '이익'은 양반 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나 노비를 비롯한 모두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를 했네요.

생각 심화

이때, '이익'이 아예 신분의 구분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입장은 아니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익'이 말하고자 하는 바의 핵심은 노비를 포함한 누구나 각자의 노력, 재주, 덕행에 따라 자신의 처지를 바꾸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신분이나 귀천의 구분 자체를 모두 없애 결과적으로 모두가 같은 위치에 놓이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이익'은 노비의 매매와 세습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므로, 기존의 세습적 신분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은 절

대 아닙니다. 다만 그가 부정한 것은 태생에 따라 고정되고 세습되는 신분 질서였지, 개인의 재주와 덕행에 따른 차등적 질서까지 모두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요. 지문이 쉬울수록 이런 미묘한 차이를 예민하게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④ #주장 제시 #재진술

이처럼 인간 삶의 변화는 각자가 노력을 통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이익'은 개인이 '조명'이 가능할 정도로 최소한의 기반만 보장해 주고, 결과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국가'의 올바른 역할이라고 주장합니다. '노비를 비롯한 모든 사람은 노력하여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이익'의 한마디를 고려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국가가 개인의 운명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이익'의 한마디가 실현되기 어려우니까요.

하이라이트 문장

③이처럼 그는 양반 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나 모두에게 기회를 개방하고자 하였다.

'이익'의 한마디를 농축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고덕고덕했어야 해요.

(나) 1문단

①19세기 말부터 서구의 기본권 사상이 알려지면서 **민권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었다. ②임오군란 이후, 급진 개화파는 사회 개혁의 핵심 중 하나로 **민권 신장**에 관심을 기울였다. ③**유길준**은 근대 국민 국가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존재로 **민(民)**에 주목하였다. ④그는 **민**에게는 **절대적인 천부 인권** 이외에 사회 계약에 의한 상대적 권리인 **인위적 권리**가 있고, 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근대적인 법률의 제정과 시행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하였다. ⑤하지만 그에게 **민**은 무지한 존재였기 때문에 교육받지 않으면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존재로 간주되었다. ⑥**박영효**는 **민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권(國權)도 위태롭다**고 보았다. ⑦그리고 **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을 통해서만 존재 가능**하고, 법을 지킬 때만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①~② #단어의 의미 살리기 #카테고리 나누기 #주장 제시

시간이 흘러 19세기 말이 되었습니다. 이때 서구의 기본권 사상이 알려지면서, '민권'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었다고 해요. 단어의 의미 그대로 '민'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민권에 대한 논의'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주시면서, 임오군란 이후 '급진 개화파'가 민권 신장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주장을 체크해봅시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③~④ #주장 제시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재진술

먼저 '유길준'의 주장입니다. 그는 근대 국민 국가 달성을 위해 '민'이 꼭 필요하다고 보았어요. '민'에게는 절대적인 천부 인권과 사회 계약에 의한 상대적 권리인 인위적 권리가 있다고도 보았습니다. '천부 인권'은 단어의 의미 그대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권리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절대적인 권리인 것이죠. 반면 '인위적 권리'는 사회 계약에 의해 형성되는 상대적 권리입니다.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권리라기보다는, 사회와 국가를 이루는 과정에서 법률과 제도를 통해 구체화되는 권리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유길준'이 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근대적인 법률의

제정과 시행이 필수적이라고 본 것도 자연스럽죠? 천부 인권이 권리의 근본 근거라면, 인위적 권리는 그 권리가 사회 안에서 제도화된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단어의 의미를 살리며 최대한 이해하는 방식으로 독해할 수 있어야 해요.

⑤ #주장 제시 #재진술

그러면서도, '유길준'은 '민'이 무지한 존재이기에 교육받지 않으면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민권'이라는 개념이 막 떠오르고 있다는 건 아직 '민'들이 '민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데, '민권'도 보장받아 본 적이 없는 '민'들이 교육받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혼란을 초래할 수 있겠다는 식으로 납득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름의 논리를 만들어가면서 '유길준'의 주장을 확실하게 납득해야 해요.

⑥~⑦ #주장 제시 #재진술

이번에는 '박영호'입니다. 그 역시 '민권'을 강조했는데, '유길준'과 마찬가지로 '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해 '법'을 중요시했어요. 나아가 법을 지킬 때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건, 교육을 받아서 '민권'과 '법'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박혀야 한다는 '유길준'의 주장과 사실상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유길준'과 '박영호'의 주장을 '급진 개화파'의 주장으로 묶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이라이트 문장

⑦그리고 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을 통해서만 존재 가능하고, 법을 지킬 때만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당연히 '유길준'의 주장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장을 보고서 '박영호'와 '유길준'이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다 같은 말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나) 2문단

①김윤식을 비롯한 온건 개화파는 국가의 노비 세습 금지령 공포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인간은 타고난 능력에 따라 귀천이 생기고 이에 따라 부림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②민들의 평등을 인정하면서도 신분 차별을 정당화하는 양면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

①~② #주장 제시 #재진술 #단어의 의미 살리기

이번엔 '김윤식'을 비롯한 '온건 개화파'입니다. 이들은 국가의 노비 세습 금지령 공포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개화파'였어요. 하지만 인간은 타고난 능력에 따라 귀천이 생기고, 이에 따라 부림을 받는 것(=신분 차별)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했네요. 확실히 '급진 개화파'와는 달리 '온건'하게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민은 평등하기에 노비 세습은 금지해야 하지만, 신분 차별 자체는 정당화할 수 있다는 양면적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나) 3문단

①민권에 관한 개화파의 주장은 여러 상황과 맞물려 갑오개혁의 신분제 폐지라는 법제상 조치로 이어졌지만, 노비는 잔존했고 사회적 차별도 지속되었다. ②이러한 상황에서 독립 협회는 자유와 평등은 하늘이 준 권리임을 근거로 노비 소유와 매매를 맹렬히 비판하였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①~② #재진술 #주장 제시

'급진'이든 '온건'이든 '개화파'들은 '민권'을 긍정하는 주장을 펼쳤고, 이는 결국 갑오개혁의 신분제 폐지라는 법제상 조치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전히 노비는 존재했고 차별도 지속되었어요. '민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독립 협회'는 자유와 평등은 하늘이 준 권리, 즉 '천부 인권'임을 강조합니다. '민권'의 일부인 '천부 인권'을 바탕으로, 노비 소유와 매매를 맹렬히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개화파들과 같은 주장을 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하이라이트 문장

②이러한 상황에서 독립 협회는 자유와 평등은 하늘이 준 권리를 근거로 노비 소유와 매매를 맹렬히 비판하였다.

'급진 개화파'와 사실상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결국 다 같은 말로 이루어진 지문이었던 거예요.

(나) 4문단

①일제 강점기에도 신분 차별이 이어지는 가운데 차별받던 백성들의 인권 존중을 요구하는 형평 운동이 전개되었다. ②1923년에 경남 진주에서 형평사가 조직되어 시작된 이 운동은 경제적 부를 쌓은 백성들과 사회 운동가들이 결합하여 본격화되었고, 이후 대중의 호응을 이끌며 전국화되었다. ③이 운동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이루려는 인권 운동이자 참여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공동체 운동의 성격을 가졌다. ④이 운동의 도화선이 교육 차별이었던 만큼, 사회적 대우를 받으려면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교육 활동이 펼쳐졌다. ⑤그리고 회원들은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일상에서 실천하고 이를 제도화하고자 분투하였다.

①~② #카테고리 나누기 #정의 제시

시간이 흘러 일제 강점기가 되었지만, 여전히 신분 차별은 이어졌습니다. 이에 차별받던 백성들의 인권, 즉 민권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형평 운동'이 전개되었다고 해요. 경제적 부를 쌓았지만 여전히 사회적 차별 속에 살던 백성들과 사회 운동가들이 결합하여 이 운동이 본격화·전국화되었다고 합니다. '형평 운동'이라는 개념의 정의가 제시된 것이나 다름없으니 확실하게 체크할 수 있어야 해요.

③~⑤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재진술

'형평 운동'은 백성을 비롯한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이루려는 '인권 운동'이자, 참여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차별 극복)을 제공하는 '공동체 운동'의 성격을 가졌다고 해요. 여기서 은근슬쩍 '인권 운동'과 '공동체 운동'이 정의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겠죠? '인권'과 '공동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리면 그 정의를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합니다.

나아가 이 운동의 도화선은 '교육' 차별이었다고 해요. 돈 많은 백성들이 막상 교육을 받지는 못하니 시작한 운동이 바로 '형평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대우를 받으려면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교육 활동'이 펼쳐졌고,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일상에서 실천하고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형평 운동'은 단순히 평등하게 대하달라는 외침이 아니라, 실천적인 '운동'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하이라이트 문장

③이 운동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이루려는 인권 운동이자 참여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공동체 운동의 성격을 가졌다.

이것을 '형평 운동'의 내용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권 운동' 및 '공동체 운동'을 정의하는 문장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나 뒤에서 '인권 운동' 및 '공동체 운동'이라는 말이 반복되면 이 문장의 정의를 끌고 올 수 있어야 해요.

(나) 5문단

①다른 사회 운동과의 연대를 통해 변화를 모색했던 형평 운동은 내부 분열과 갈등, 일제의 억압이 이어지면서 위축되었고, 1935년에 형평사가 대동사로 개칭되면서 운동 본래의 성격을 잃었다. ②하지만 불평등한 사회의 개혁을 추구한 이 운동은 이후의 인권 운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①~② #정의 제시 #재진술

이러한 '형평 운동'은 내부 분열과 갈등, 일제라는 외부의 억압 등 내외적 위기를 이기지 못한 채 위축되었고, 결국 운동 본래의 성격을 잃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운동은 이후의 '인권 운동', 즉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이루려는 운동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해요. 당연하게 납득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2%	4%	88%	4%	2%

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㉓

① (가)는 노비제를 비판한 학자들의 인식 차이, (나)는 노비제 폐지로 인해 발생한 사회 문제를 제시하였다.

명시적 근거	-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가)에 학자 한 명 나오는데?
해설	(가)에서 학자는 '이익' 한 명밖에 나오지 않았습니 다. 애초에 '학자들의 인식 차이'라는 말이 성립할 수 없어요. 또한, (나)에서 노비제 폐지로 인해 발생한 '사회 문제'를 언급한 적도 없죠?

② (가)는 노비가 겪는 불합리한 사회 현실의 문제점을, (나)는 국가 정책에 대한 개화파들의 찬반 의견을 제시하였다.

명시적 근거	-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찬반 의견이 어딤나.

해설	(가)에서 노비가 겪는 불합리한 사회 현실의 문제 점이 간접적으로나마 제시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나)에서 국가 정책에 대한 개화파들의 찬반 의 견이 제시된 적은 없어요. 굳이 따지자면 '신분제' 라는 국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만 제시되었을 뿐 이죠. 이걸 떠나서, 애초에 이 지문의 화제와 직결 되는 내용이 아니니 틀린 선지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③ (가)는 조선 시대 노비제에 대한 특정 실학자의 견해를, (나)는 민권에 관한 논의가 전개된 역사적 흐름을 서술하였다.

명시적 근거	지문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화제네.
해설	(가)는 조선 시대 노비제에 대한 '이익'이라는 특정 실학자의 견해를 서술했고, (나)는 '민권'에 관한 노 의가 전개된 역사적 흐름(19세기 말→일제강점기) 을 서술했습니다. 이 지문의 화제 그 자체죠?

④ (가)는 노비에 대한 양반들의 여러 견해를, (나)는 민권 개혁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을 서술하였다.

명시적 근거	-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민권 개혁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입장이 어딤어.
해설	(가)에 노비에 대한 양반들의 여러 견해가 나타난 것은 맞습니다. '운정적 차원에 머문 시각'으로 정리했던 기억이 있죠? 한편 (나)는 '민권' 개혁에 대 한 여러 입장이 제시되었을 뿐, 그 부당성을 강조 하는 주장이 나타난 적은 없습니다.

⑤ (가)는 양반과 노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된 구조적 한계를, (나)는 근대 국가 건설을 위한 민권 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서술하였다.

명시적 근거	-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갈등이 핵심이 아니지.
해설	(가)는 노비를 바라보는 양반의 인식이 변화했음을 강조하는 지문입니다. 즉, 양반과 노비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지문에 언급되지 않은 양반과 노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된 구조적 한계는 '신분 질서'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가)의 내용과 무관하니 틀린 선지입니다. 한편, (나)에 대한 내용은 (나)의 핵심 그 자체죠? (나)는 '민권 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이야기하는 지 문이었어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9%	69%	9%	8%	5%

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양반들의 노비에 대한 글

- '온정적 차원'에 머물렀던 양반들의 노비에 대한 인식이 잘 드러나는 글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과는 달리 노비를 단순한 '물적 성격'을 지닌 물건이 아니라 '자유와 권리'가 인정되는 인간으로 취급했다는 긍정적인 면모도 존재했죠?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풀어봅시다.

① 지배층의 이념에 따라 행동한 노비들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기록하였다.

명시적 근거	(가) 2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성리학적 이념을 투사하여 칭송했지.
해설	양반들은 지배층의 이념, 즉 '성리학적 이념'에 따라 행동한 노비들을 '충'이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의 이념에 따라 노비를 바라본 것이니 부정적으로 평가할 여지도 있지만, 어쨌든 양반들이 이전과는 달리 노비를 긍정적으로 기록한 것은 맞는 말이죠.

② 노비와 양인의 신분 격차가 줄어들면서 노비들이 갖게 된 인식을 향상화하였다.

명시적 근거	(가) 1문단 3번 문장, (가) 2문단 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노비들이 아니라 양반들의 인식이지.
해설	㉠의 핵심은 '양반들의' 노비에 대한 글이라는 것입니다. 노비와 양인의 신분 격차가 줄어들면서 양반들이 노비에 대해 새롭게 갖게 된 인식을 향상화한 것이지, 노비들의 인식을 표현한 게 아니죠. ㉠의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어렵지 않게 답으로 골라낼 수 있겠습니다.

③ 양반이 노비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약자로 여기는 태도를 반영하였다.

명시적 근거	(가) 2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작고 연약한 존재로 향상화했지.
해설	양반이 노비를 바라보는 '온정적 차원'의 시각을 그대로 표현한 선지입니다. 따뜻한 시선과 함께 약자로 여기는 태도를 보였다는 건 부정할 수 없죠?

④ 노비의 애환에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간과하였다.

명시적 근거	(가) 2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신분 질서를 문제 삼진 않았지.

해설	빈한한 주인을 위해 희생하는 노비의 애환에 관심을 두긴 했지만,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인 '신분 질서'에는 큰 관심이 없었던 것이 당시의 양반들이었습니다. 확실하게 납득했던 양반들의 '한마디'죠?
----	---

⑤ 굳센 의지를 지닌 노비의 행동을 부각하면서도 노비가 처한 불평등한 현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명시적 근거	(가) 2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랬지.
해설	4번 선지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한 내용이죠? 노비의 의연한 행동과 의지를 강조하지만, 노비가 처한 불평등한 여건과 처지는 거론하지 않은 게 당대 양반들이었습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56%	6%	20%	7%	11%

6. ㉢, ㉣가 서로에게 할 수 있는 비판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이익(李瀾) / ㉣ 유길준

- '서로에게 할 수 있는 비판'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문제입니다. 비판 문제의 핵심은 결국 각 주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익'은 '노비를 비롯한 모든 사람은 노력하여 운명을 바꿀 수 있으니 국가가 크게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고, '유길준'은 '민권 달성을 위해 법률의 개입이 필수적이지만, 민은 무지하기에 교육을 꼭 받아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이러한 한마디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할 수 있는 비판을 주관식으로 생각해 볼까요? '이익'은 '유길준에게 '민도 조명을 바탕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존재이다.'라고 비판할 것이고, '유길준'은 '이익에게 반대로 '법률과 교육, 즉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의 중요성을 간과했다.'는 취지의 비판을 하겠네요. 이를 미리 생각해 놓고 답을 골라 주셔야 합니다. 이게 너무 어렵다고 해도, 최소한 '이익'과 '유길준'의 한마디를 정확하게 정리한 채로 문제 풀이에 나서야 해요.

① ㉢는, ㉣가 인간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겠군.

명시적 근거	(가) 4문단 1번 문장, (나) 1문단 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민들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동적 존재인데 왜 무시하냐고 하겠지.
해설	우리가 미리 생각한 내용과 맞닿아 있는 선지입니다. '이익'은 '유길준'이 말한 '민'들도 충분히 능동적인 노력을 통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존재들로 볼 거예요. 그런데 '유길준'은 '민'은 그저 교육받아야 할 무지한 존재로 이야기했어요. 이는 충분히 '차별적'인 시선이므로, '이익'은 이 점을 비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볍게 답으로 골라주셔야 해요.

② ㉔는, ㉕가 인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하겠군.

명시적 근거	(나) 1문단 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교육은 오히려 유길준이 강조했지.
해설	'인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은 '유길준' 주장의 핵심입니다. 이는 오히려 '유길준'이 '이익'을 비판할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③ ㉔는, ㉕가 국가의 기본 체제를 제시하지 않고 개혁을 논의하였다는 점을 비판하겠군.

명시적 근거	(나) 1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유길준은 근대 국민 국가 이야기했는데?
해설	'유길준'은 '근대 국민 국가'라는 기본 체제를 제시하며, 이를 위해 '민'이라는 존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오히려 '유길준' 쪽이 근대 국민 국가와 법률의 역할을 더 강하게 말하고 있으므로, 이 선지의 내용을 '이익'이 '유길준'에게 할 수 있는 비판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만약 '근대 국민 국가'라는 포인트를 놓쳤다면, 선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라도 '유길준'의 주장을 다시 살피며 '근대 국민 국가'라는 말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고 빠르게 선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판단이 잘 되지 않을 때는 빠르게 선지에서 묻는 개념의 정의(사람의 주장)를 체크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④ ㉔는, ㉖가 국가의 개입을 강조하여 개인의 발전 기회를 차단한다는 점을 비판하겠군.

명시적 근거	(가) 4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익은 국가 개입 싫어하는데?
해설	'이익'은 국가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 적도 없는 말을 가지고 비판하는 건 적절하지 않죠?

⑤ ㉔는, ㉖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자연적 이치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하겠군.

명시적 근거	(가) 3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익은 운명을 강조하는데?
해설	'이익'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자연적 이치, 즉 '천명'과 '성명'을 언급했습니다. 인간이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조명'에 조금 더 집중했을 뿐이죠. 따라서 이는 '이익'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적절하지 않은 비판이 되겠네요.

FAQ

Q : '유길준'은 '천부 인권'을 이야기했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자연적 이치'를 언급한 것으로 보면 되나요?

A : 틀렸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지만, 맞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천부 인권'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에게 '권리'가 주어져 있다는 것이지,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건 아니거든요. 권리가 주어진 상태로 '정해진' 것은 맞지만, '천명·성명'처럼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선지는 '해설'처럼 단순히 '이익'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논리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8%	67%	11%	6%	8%

7. (나)의 '형평 운동'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㉔

- 경제적 부를 쌓았으나 교육에서 차별받던 백성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형평 운동'에 대해 묻는 문제입니다. 이는 '인권 운동'이자 '공동체 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가볍게 해결해봅시다.

① 형평사를 중심으로, 개인의 소양에 따라 사회적 대우가 달라지는 부당함을 비판하였다.

명시적 근거	(나) 4문단 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신분 차별을 비판하며 시작된 거지.
해설	'형평사'를 중심으로 한 것은 맞지만, '형평 운동'은 개인의 소양이 아닌 신분에 따라 사회적 대우(특히 교육)가 달라지는 부당함을 비판한 운동입니다. '형평 운동'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해야 해요.

② 백정에 대한 차별 문제 해결과 함께 형평사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명시적 근거	(나) 4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인권 운동이자 공동체 운동이었지.
해설	'차별 문제 해결'을 '인권 운동'의 정의로, '형평사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을 '공동체 운동'의 정의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개념의 정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에 불과했네요. '형평 운동'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한 것이었죠?

③ 백정들이 처한 경제적 불평등을 제도적 차원에서 해소하기 위한 활동이 중심이었다.

명시적 근거	(나) 4문단 2번~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백정들은 돈은 많았지.

해설	‘형평 운동’이 전개된 계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경제적 부를 쌓았으나 교육 차별을 겪던 백정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것이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이 아니었어요. ‘경제적 부를 쌓은’이라는 구절을 놓쳤다고 해도, ‘형평 운동’의 핵심 주장을 바탕으로 지워낼 수 있어야 합니다.
----	--

- ④ 형평사가 대동사로 개칭되면서 교육을 통해 참여자들의 평등한 권리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명시적 근거	(나) 4문단 4번 문장, (나) 5문단 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대동사로 개칭되면서 원래 성격을 잃었다며.
해설	‘형평사’가 ‘대동사’로 개칭되면서, 교육을 통해 참여자들 모두 사회적 대우를 받자는 운동 본래의 성격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문단까지 집중해서 읽었다면 충분히 떠올릴 수 있는 내용이에요.

- ⑤ 일제의 억압으로 발생한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 운동가들의 노력으로 시작되었다.

명시적 근거	(나) 5문단 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일제의 억압 때문에 위축된 거지.
해설	일제의 억압이 있기 전, 교육 차별을 받던 백정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것이 ‘형평 운동’입니다. 이것이 일제의 억압을 받으며 위축된 것이기에, 일제의 억압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것은 절대 맞는 말이 될 수 없어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8%	21%	8%	13%	50%

8. (가),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⑤

서양의 고대 사상가들은 대체로 노예제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대표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본래부터 심사숙고 능력이 없는 노예는 시민과 구별하여 철저히 정치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보았다. 계몽주의 시대 이후, 사회의 공리(功利)를 극대화하지 않는 모든 제도와 법률의 근본 개혁을 촉구하며 노예를 해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유럽 각국의 식민 지배에 따라 노예를 사교하는 노예 무역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노예들의 빼앗긴 자유를 회복시키자는 노예 해방론이 제기되었다. 노예제하에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노예에서 해방되어 문학적 성취를 이룬 노예 출신 작가들은 노예를 차별할 이유가 없음을 강조하며 노예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 여러 주장이 추가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체크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겠죠?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먼저 ‘아리스토텔레스’로 대표되는 서양의 고대 사상가들은 ‘노예’를 무시하며 철저히 정치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는 타고난 능력에 따라 귀천이 생긴다는 ‘온건 개화파’의 주장과 비슷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한편, ‘계몽주의 시대’ 이후 사회의 공리를 극대화하지 않는 모든 제도와 법률의 근본 개혁을 통해 노예를 해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법률’을 통해 ‘인권’을 확립해야 한다는 ‘급진 개화파’의 주장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 이후 ‘노예 해방론’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이때 스스로의 노력으로 노예에서 해방되어 문학적 성취를 이룬 ‘노예 출신 작가들’이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이익’이 말한 대로 ‘조명’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바꾼 이들이 제도의 변혁을 이끌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지문 내용과 연결지며 최대한 정리한 상태에서 선지로 가서야 합니다. 그래야 선지 판단 속도가 오히려 빨라져요.

- ① <보기>의 노예를 정치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과 (나)의 김윤식의 주장은 모두, 인간의 타고난 능력의 차이를 인정한 것이겠군.
② <보기>의 사회의 공리를 극대화하지 않는 법률의 근본 개혁을 촉구한 주장과 (나)의 박영효의 주장은 모두, 인간의 권리 보장을 위해 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겠군.

명시적 근거	<보기>, (나) 2문단 1번 문장, (나) 1문단 6번~7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미리 생각한 내용들이네.
해설	두 선지 모두 <보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미리 생각했던 내용이지요? 이런 식으로 가볍게 지워낼 수 있어야 합니다.

- ③ <보기>의 식민 지배에 따른 노예 무역의 대상이었던 노예와 (가)의 조선 시대의 노비는 모두, 소유주의 뜻에 따라 매매의 대상이었다는 것이겠군.

명시적 근거	<보기>, (가) 1문단 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러네.
해설	<보기>의 노예 ‘무역’이라는 말과, (가)의 ‘물적 성격’이라는 말을 고려하면 당연하게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노예와 노비 모두 소유주의 뜻에 따라 매매할 수 있는 대상이었어요.

- ④ <보기>의 노예들의 빼앗긴 자유를 회복시키자는 주장과 (나)의 독립 협회의 주장은 모두,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겠군.

명시적 근거	<보기>, (나) 3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노예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자유를 누리자는 주장이지.
해설	<보기>의 ‘노예 해방론’은 노예들의 빼앗긴 ‘자유’를 회복시키자는 입장이고, ‘독립 협회’의 주장은

하늘이 준 권리인 '자유'가 노비에게도 있음을 강조하며 노비 소유·매매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노예·노비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자유'를 누리자는 주장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FAQ

Q :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건 너무 과하지 않나요? 실제로 유럽에서도 노예 해방 이후에 여성들의 참정권 제한 등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었잖아요.

A :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지문 속에서 차별받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대상으로 나온 것은 '노예·노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자유를 얻는 순간 '모든' 사람이 자유를 얻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선지의 표현이 조금 아쉬운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지문 중심으로 사고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⑤ <보기>의 노예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인 노예 출신 작가의 성취와 (가)의 이익의 주장은 모두, 사회 제도의 변화를 위한 능동적인 행위의 당위성과 결부된 것이겠군.

명시적 근거	<보기>, (가) 4문단 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노예 출신 작가의 성취는 그냥 문학적 성취인데?
해설	<p>선지에서 묻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선지에서는 <보기> 속 노예 출신 작가의 '성취'에 대해 묻고 있어요. 이 '성취'는 '문학적 성취'이기 때문에, '사회 제도의 변화'를 위한 능동적인 행위의 당위성과 결부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능동적인 행위는 맞지만, '사회 제도의 변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게 핵심이죠. 여기서부터 틀린 선지네요.</p> <p>나아가 '이익'의 주장 역시 능동적인 노력을 통해 '개인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지, '사회 제도의 변화'를 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조명'이라는 개념을 정의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이익'의 한마디를 정확하게 인식했다면 여기에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 인문 지문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주장, 즉 '한마디'임을 잊지 마세요.</p>

FAQ

Q : <보기>의 노예 출신 작가들 역시 '노예제 폐지'라는 주장, 즉 사회 제도의 변화를 위한 주장을 하지 않았나요?

A : 다시 말하지만, 선지에서 묻는 것을 정확하게 따져야 합니다. 선지에서 묻는 건 노예 출신 작가의 '성취'이지, '성취 이후의 주장'이 아니에요. 이들의 '성취' 자체는 사회 제도 변화와 관련이 없어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1%	1%	1%	91%	6%

9. 문맥상 ④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④

- ① 우리 반은 오래도록 염원하던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 ② 학교는 학생회에 기획부, 총무부, 체육부 등을 두고 있다.
- ③ 그는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두고 있다.
- ④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만났던 친구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
- ⑤ 그의 판단은 그동안 쌓은 지식과 경험에 근거를 두고 있다.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 ① 화제 check : 독서 지문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의 틀'을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 ② 정의 인식 : 단어의 의미를 살린 상태로, 지문에 제시된 정의와 붙여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납득'해서 본인의 말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해요.
- ③ 재진술 인식 :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아예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 '같은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정보량'을 줄이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 ④ 비교/대조 : 비교되는 대상이 나오면, '공통점'과 '차이점' 중심으로 읽어나가면 됩니다.
- ⑤ 선지에서 묻는 것 : 모든 선지 판단의 시작은 '무엇인지 인식하는 것'에서부터입니다. 특히 특정 개념에 대해 묻는 경우에는 그 개념의 '정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문 내용 총정리

인물들의 주장이 선명하고 그 내용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점에서 큰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다만 인물의 주장, 즉 '한 사람의 한마디'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었어요. 만약 그랬다면 아직 인문 지문 실력이 부족한 것이니, 더 긴장하고 연습하셔야 합니다. 핵심은 '한마디'라는 걸 잊지 마세요.

나아가, 지문에 적힌 말 이상으로 추론할 여지가 많았던 지문이기도 합니다. 문제가 조금만 더 어렵게 나왔어도 체감 난이도가 확 올라갔다는 뜻이니, 해설에서 제시한 대로 '해야 할 생각'을 하며 읽었는지까지 점검해보도록 합시다.

생각의 전개 <법 지문은 이렇게 읽는다.>

2027.06 [10~13] 사회(경제+법)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의 정부의 개입' ☆☆☆

1문단

① 완전경쟁시장의 경제 주체는 완전한 거래 정보를 갖는다고 가정되지만, 현실의 경제 주체는 정보 획득을 위한 투입 비용의 차이에 따라 취득 정보의 양과 질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 상황에 처한다. ② 대표적인 정보 비대칭 상황은 거래의 한쪽이 상대방에 비해 정보를 더 적게 가지는 경우이고, 이때 정보를 적게 가진 경제 주체는 낮은 품질의 상품을 상대적으로 더 비싼 가격에 선택하는 역선택 문제에 직면한다. ③ 정보 비대칭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법에 근거하여 시장에 개입한다. ④ 예컨대 정부는 합리적 소비에 필요한 성분이나 효능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것을 공급자에게 강제한다.

① #수식된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완전경쟁시장, 즉 '완전'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에서의 경제 주체는 '완전한' 거래 정보를 갖는다고 가정됩니다. 모두가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에 모든 주체가 완전하게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현실에서 경제 주체는 정보 획득을 위한 투입 비용의 차이로 인해 취득 정보의 양과 질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처합니다.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말이죠? 더 많은 비용을 들이면 더 많고 질 좋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는 건 당연하니까요. 이 상황을 '정보 비대칭' 상황, 즉 단어의 의미 그대로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단어의 의미를 살리며 정의를 확실하게 납득해야 해요.

② #사례-원리 연결 #수식된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대표적인 '정보 비대칭' 상황은 거래의 한쪽이 상대방에 비해 정보를 더 적게 가지는 경우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 구매자들은 판매자에 비해 정보를 적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에 의하면, 판매자들은 구매자들에 비해 정보 취득에 훨씬 많은 비용을 들일 테니까요. 이에 구매자와 같이 정보를 적게 가진 경제 주체는 낮은 품질의 상품을 상대적으로 더 비싼 가격에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원래 할 수 있었던 합리적인 '선택'과 '역'으로 가는 것이기에 '역선택 문제'라고 하는 것이겠죠? 역시 어렵지 않게 납득할 수 있었어요.

③~④ #화제 제시 #사례-원리 연결

이러한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법에 근거하여 시장에 개입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 지문의 큰 흐름이 보입니다. '정보 비대칭' 문제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가, 개입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화제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성분이나 효능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공급자에게 강제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소비자는 공급자보다 상품 정보를 덜 가지고 있으니, 정부가 법을 통해 공급자에게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것이죠.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었네요.

하이라이트 문장

③ 정보 비대칭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법에 근거하여 시장에 개입한다.

화제를 제시하는 문장입니다. '정보 비대칭 상황 해소'를 위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궁금해하며 읽어봅시다.

2문단

① 정보 비대칭 문제는 온라인 상거래에서도 발생한다. ② 생성형 인공지능이 활용되면서 이용자가 정보의 진위나 의도, 편향 등의 여부를 알기 어려운 허위·과장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③ 이에 정부는 관련 법률 조항을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생성물 표시 의무**를 강제하였다. ④ 하지만 광고성 정보를 제작하여 게시한 정보 제공자와 광고성 정보가 유통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그와 같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⑤ 이렇듯 온라인 정보 비대칭 상황에 대한 정부 개입에 관하여 엇갈리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⑥ 이외에도 사회적·정치적 견해 표명에 대한 정부 개입 여부를 두고도 구분되는 입장이 제시되고 있다.

①~③ #재진술 #사례-원리 연결

이러한 '정보 비대칭'의 문제는 '온라인 상거래'에서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활용되면서, 이용자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허위·과장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의 삶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내용이니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이에 정부는 관련 법률 조항을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생성물 표시 의무'를 강제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때문에 '정보 비대칭'이 심화된 것이니, 이와 관련된 기업에게 '정보 비대칭'을 줄일 방안을 강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생각 심화

여기서 '관련 법률 조항을 통해'라는 말에 주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법률'이라는 '진짜로' 같은 말을 확인했다면, 1문단에서 '정부는 법에 근거하여 시장에 개입한다'는 말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부인 정부는 입법부인 국회가 만든 '법'에 근거하여(법률의 조항을 통해) 행정 규제를 한다는 것,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행정입법' 지문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이 지문에서는 이 부분을 깊게 물어보지 않았지만, 혹시나 선지화될 때를 대비하여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법 지문의 배경지식에 해당하니까요.

④~⑤ #주장 제시 #재진술 #비교/대조

하지만 광고성 정보를 제작하여 게시한 정보 제공자와 그 정보가 유통되는 플랫폼의 사업자에게도 그와 같은 의무(생성물 표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해요. 여기서 '하지만'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고, 5번 문장에서는 '엇갈리는 주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 주장이 앞에 나온 정부의 규제와 대비되는 지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둘은 어떤 점에서 다른 걸까요? 4번 문장은 '정보 제공자'와 '플랫폼의 사업자에게도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 즉 '의무 부과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규제의 '의무 부과 대상'을 생각해보면 될 텐데, 이는 바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예요. 결국, 현재는 인공지능 활용 사업자에게만 '생성물 표시 의무'를 부과하지만 그렇지 않은 정보 제공자와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이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무 부과 대상'의 범위를 넓히려는 주장이 나온다는 점에서 '엇갈리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최대한 납득하려는 태도가 있었다면, '엇갈리는 주장'이라는 말을 보고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⑥ #카테고리 나누기 #화제의 흐름

이 외에도 사회적·정치적 견해 표명에 대한 정부 개입 여부를 두고도 구분되는 입장이 제시되고 있다고 해요. 새로운 카테고리가 만들어지는 모습이죠? 그러면서도 '정보 비대칭 상황'이라는 화제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보 비대칭 상황' 속에서 '사회적·정치적 견해 표명'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 궁금해하며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이라이트 문장

⑤이렇듯 온라인 정보 비대칭 상황에 대한 정부 개입에 관하여 엇갈리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엇갈리는 주장'이라는 말을 보고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왜 엇갈리는 거지?'라는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납득한 정보들이 모여 압도적인 속도의 선지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3문단

①완전경쟁시장 모델을 상정하는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에 따르면, 어떤 표현의 진위나 가치 여부는 다양한 의견 간의 경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된다. ②이를 근거로 미국 연방 대법원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에 해당하지 않는 표현은 기본권으로 보호하고, 플랫폼 시장에도 사업자의 자율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③우리나라 헌법 재판소도 사회적·정치적 표현의 진위나 가치 여부는 사상과 의견의 경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①~③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사례-원리 연결 #화제의 흐름

완전경쟁시장 모델을 상정하는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어의 의미 그대로 '사상의 진위나 가치 여부는 '자유 시장'의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 간의 '완전'한 '경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지,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미국 연방 대법원 및 우리나라 헌법 재판소도 기본적으로 이 입장을 받아들이고 있죠? 미국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에 해당하지만 않으면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모습입니다.

여기서,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이러한 입장을 '원칙'으로 보고 그렇지 않은 '예외'가 제시될 것이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화제와 엮어서,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4문단

①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에 대한 비판론도 제기되었다. ②비판론에 따르면, 진실한 정보는 과소 공급되고 허위·왜곡 정보가 대량 공급되는 상황에서는 다양한 의견 간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다. ③또 허위·왜곡 정보가 시민의 사회적·정치적 사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안 판단에 쓰이고, 정책 담당자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의도적으로 유통한 정보를 시민의 진정한 의견으로 오인할 수 있다. ④이러한 입장에 따라 **비판론**은 민주주의 의사 결정의 왜곡을 막기 위해 플랫폼과 정부의 공동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⑤표현의 자유가 기본권이라는 점을 감안해 법적 근거를 갖추되, 유해하거나 불법인 정보를 플랫폼 사업자가 사전에 자율적으로 삭제하거나 차단하고, 미흡하면 사후에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①~③ #주장 제시 #재진술 #화제의 흐름

우리가 미리 예상한 대로, 이에 대한 비판론도 제기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진실한 정보는 과소 공급되고 허위·왜곡 정보가 대량 공급되는 상황에서는 의견 간의 경쟁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이 상황에서 '의견 간의 경쟁'을 방해해버리면 허위·왜곡 정보가 시민의 사회적·정치적 사안 판단에 쓰이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의도적으로 유통한 정보(=허위·왜곡 정보=대량 공급되는 정보)를 본 정책 담당자는 그것을 시민의 진정한 의견으로 오인할 수도 있을 것이구요. 확실히 이에 대해선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아가, 여기서 '정보 비대칭→역선택 문제'라는 화제의 흐름을 생각할 수 있으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진실한 정보는 과소 공급되고 허위·왜곡 정보가 대량 공급되는 상황에서는, 정보 생산자와 달리 정보 수용자가 그 정보의 진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보 비대칭' 상황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의도적으로 유통한 정보 역시 정보 생산자에 비해 정보 수용자가 정보를 적게 가진 '정보 비대칭' 상황을 야기한다고 할 수 있죠. 이때 허위·왜곡 정보가 시민의 사회적·정치적 사안 판단에 쓰이거나, 특정 개인·집단이 유통한 정보를 정책 담당자가 시민의 진정한 의견으로 오인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일종의 '역선택'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낮은 품질의 상품(허위·왜곡 정보, 특정 개인·집단이 유통한 정보)을 비싼 가격(잘못된 사안 판단, 잘못된 정책 시행)을 치르면서 사는 것과 같은 상황이니깐요. 이처럼 모든 정보는 화제 중심으로 모인다는 점을 생각하며 확실하게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④~⑤ #주장 제시 #재진술

이러한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판론'은 플랫폼과 정부의 공동 규제 강화를 주장합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사전'에 자율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차단하고, 미흡하면 정부가 '사후'에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플랫폼 사업자는 미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사전'에 규제를 하고, 이를 검토하는 정부가 '사후'에 규제한다는 것. 어렵지 않게 납득할 수 있겠네요.

나아가, 여기서 '표현의 자유'가 기본권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법적 근거'를 갖춰야 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사회적·정치적 견해'와 관련된 '원칙'이기도 했고, 행정적 규제를 하려면 '법'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 역시 당연한 말이니깐요. 심지어 '기본권'이라는 '진짜로' 같은 말이 사용되기도 했죠? 이렇게 풍부하게 생각하며 확실하게 납득해야 해요.

하이라이트 문장

②비판론에 따르면, 진실한 정보는 과소 공급되고 허위·왜곡 정보가 대량 공급되는 상황에서는 다양한 의견 간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를 단순히 '비판론'의 주장으로만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정보 비대칭'이라는 화제와 엮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정보는 화제 중심으로 모인다는 대원칙을 잊지 마세요.

5문단

①정부 개입 여부에 대한 엇갈린 논의는 **헌법 재판소의 실명 확인 사건**에서 표면화되었다. ②선거 운동 기간 중에 게시판 이용자의 실명 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를 제재하는 법률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 재판소 '**다수 의견**'은 해당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③반면 '**소수 의견**'은 비판론과 같은 취지에서 허위·왜곡 정보는 토론 등 자율적 방법으로 교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④플랫폼과 인공 지능 활용이 일상이 된 시대에 새겨 봐야 할 대목이다.

①~③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주장 제시 #재진술

이러한 논의는 헌법 재판소의 '실명확인 사건'에서 표면화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선거 운동 기간 중에 게시판 이용자의 '실명 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를 제재하는 법률 규정에 대한 사건이라고 해요. 단어의 의미를 살리면 이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지요? 이에 대해, 헌법 재판소의 '다수 의견'은 해당 규정을 위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회적·정치적 견해 표명'을 다루는 기본적인 원칙은 '사상의 자유 이론 시장 이론'에 따르는 것이니, 실명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플랫폼 사업자인 인터넷 언론사를 제재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죠.

한편, 헌법 재판소의 '소수 의견'도 존재합니다. 이는 '비판론'과 같은 취지에서, 즉 '허위·왜곡 정보'가 훨씬 많이 생산되는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이러한 정보는 토론 등 자율적 방법으로 교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어요. 그러니 실명 확인을 거치지 않으면 '허위·왜곡 정보'가 특정 개인 혹은 집단으로부터 무차별적으로 생산될 수 있고, 이것이 결국 여론의 왜곡을 낳을 수 있다는 입장인 것이죠. 이는 4문단에서 말한 '비판론'의 주장을 재진술한 것에 불과하죠? 이렇게 연결지어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④ #재진술

플랫폼과 인공 지능 활용은 우리 시대의 일상입니다. 이런 시대에 당연히 이와 관련된 논의는 눈여겨 볼 만하죠? 여러분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본인만의 입장을 정리해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된다는 걸 생각해주세요.

하이라이트 문장

③반면 '소수 의견'은 비판론과 같은 취지에서 허위·왜곡 정보는 토론 등 자율적 방법으로 교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비판론과 같은 취지'라는 말을 보자마자 '정보 비대칭'이라는 화제와 연결지어야 합니다. 이렇게 연결지면서 정보량을 줄이고 내용을 납득할 수 있어야 해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2%	74%	7%	13%	4%

1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① 정보 비대칭 상황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명시적 근거	-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장점은 없는데?
해설	이 지문은 '정보 비대칭' 상황의 문제만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 장점을 분석한 적은 없습니다.

② 정보 비대칭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을 이론과 결부하여 구분하고 있다.

명시적 근거	지문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화제네.
해설	'정보 비대칭 상황'을 제시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식을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과 그 비판론을 통해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지문의 화제 그 자체네요.

③ 정보 비대칭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통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명시적 근거	-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사람들의 인식은 없는데?
해설	'정보 비대칭 상황'에 대한 정부의 규제에 대해 이야기할 뿐, 사람들의 인식이 어떠한지를 다루는 지문은 아니었습니다.

④ 정보 비대칭 상황을 분류하는 기준의 문제점을 사례를 들어 규명하고 있다.

명시적 근거	-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분류하는 기준이 뭔데?
해설	'정보 비대칭' 상황을 분류하는 기준이 뭔가요? 전혀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처럼 구분되는 의견은 말 그대로 '의견'이 구분되는 것이지, '정보 비대칭' 상황을 분류한 게 아니에요.

⑤ 정보 비대칭 상황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종합하여 새로운 개념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명시적 근거	-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새로운 개념 뭐?
해설	'정보 비대칭 상황'에 대한 다양한 개념은 제시되지만, 이를 종합한 새로운 개념으로 떠오르는 게 전혀 없네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3%	5%	72%	17%	3%

11.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㉓

- ① 거래에 관한 정보를 얻는 데 투입한 비용의 차이는 역선택 문제에 영향을 준다.

명시적 근거	1문단 1번~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정보 비대칭은 역선택을 낳을 수 있지.
해설	거래에 관한 정보를 얻는 데 투입한 비용이 많을수록 정보의 양과 질이 많아지는 '정보 비대칭 현상'은 '역선택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지문의 화제 그 자체로 납득했던 내용입니다.

- ② 성분 표시 강제는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개입의 한 방식이다.

명시적 근거	1문단 3번~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성분 표시 강제'는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정부 개입의 한 방식이었습니다. 해설을 써 놓고 보니 선지랑 똑같은 말이었네요.

- ③ 온라인에 유통되는 허위 광고는 그 의도가 이용자에 의해 쉽게 파악되므로 정보 비대칭 문제를 야기한다.

명시적 근거	2문단 1번~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알기 쉬우면 왜 정보 비대칭이야.
해설	온라인에 유통되는 허위 광고는 그 의도를 이용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 비대칭' 상황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이를 정확히 납득했다면 보자마자 틀린 선지로 잡아낼 수 있었을 거예요.

- ④ 경제 주체가 완전한 거래 정보를 갖는다고 가정되는 완전경쟁 시장에서는 정보 비대칭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명시적 근거	1문단 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당연하지.
해설	경제 주체가 완전한 거래 정보를 가지면, 모두 정보를 '대칭적'으로 가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당연히 지워낼 수 있는 선지네요.

- ⑤ 플랫폼 사업자가 법에 근거해 불법 정보의 유통을 사전 차단하는 것은 비판론이 제시한 공동 규제의 한 축을 이룬다.

명시적 근거	4문단 4번~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비판론'은 '공동 규제'를 제시하면서, '사전'에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고, 미흡하면 '사후'에 정부가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법에 근거해 불법 정보의 유통을 사전 차단하는 것은 '공동 규제'의 한 축을 이루죠.
----	--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2%	10%	8%	26%	54%

12. ㉑, ㉒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㉕

- ㉑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
㉒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에 대한 비판론

-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두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㉑은 일종의 '원칙'으로, 이에 따라 '사상'의 진위나 가치 여부는 다양한 의견 간의 경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한편 ㉒은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와 정부의 '공동 규제'를 통해 허위·왜곡 정보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 ① ㉑은 가치가 없는 정치적 표현을 정부가 사전에 차단해야 그 해악이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해소된다고 본다.

명시적 근거	3문단 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된다니까.
해설	가치가 없는 정치적 표현이든 뭐든, 그것은 다양한 의견 간의 분쟁을 통해 사장되어야지 '정부가 나서면 안 된다'는 것이 ㉑의 입장입니다. 가볍게 지워낼 수 있네요.

- ② ㉑은 미국 연방 대법원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한 표현을 보호하는 판결의 근거이고, 한국의 헌법 재판소가 정치적 표현을 보호하는 결정의 근거이다.

명시적 근거	3문단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명백하고 위협한 표현을 왜 보호해.
해설	미국 연방 대법원이 ㉑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맞지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에 해당하는 표현은 그 예외였습니다. 이 부분을 납득하고 넘어갔어야 이런 선지에 낚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 ③ ㉒은 민주주의 의사 결정이 왜곡되는 것은 허위 정보에 비해 진실한 정보가 과잉 공급되는 정보 비대칭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명시적 근거	4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허위 정보가 훨씬 많이 공급되는 게 문제지.

해설	㉠이 '정보 비대칭'의 문제를 언급한 것은 맞지만, 진실한 정보에 비해 허위·왜곡 정보가 훨씬 많이 생산되는 것을 문제로 짚었기에 틀린 선지입니다. 지문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미리 납득했어야 해요. 단순히 치사한 내용일치가 아니라, '허위 정보가 훨씬 많은데 정보 간의 경쟁을 시킨다는 건 말이 되지 않지.'와 같은 생각을 통해 납득하며 읽었는지를 묻는 선지예요.
----	---

④ ㉠은 정부가 유해한 정보를 미리 차단 조치해야 시민이 사회적 판단을 내릴 때 왜곡된 정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본다.

명시적 근거	4문단 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사건 조치는 정부가 하는 게 아니지.
해설	㉠은 플랫폼 사업자가 '사전'에 유해한 정보를 차단하고, 미흡하면 정부가 '사후'에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역시 확실하게 납득했다면, 이 선지를 보고 고민 없이 넘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⑤ ㉠에 따라 플랫폼 시장에 자율 규제를 실시하는 것과 ㉠이 정부와 플랫폼 사업자의 공동 규제 실시를 주장하는 것에는 모두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삼는 관점이 전제되어 있다.

명시적 근거	3문단 1번 문장, 4문단 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표현의 자유가 기본권이라는 건 ㉠도 동의하지.
해설	㉠에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삼는 관점이 전제되어 있다는 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데 ㉠에서 이야기하는 '공동 규제'를 납득하는 과정에서, 이들 역시 '표현의 자유'가 기본권이라는 점, 즉 '사회적·정치적 견해에 대한 원칙'을 고려하여 '법적 근거'를 갖춰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음을 생각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가볍게 답으로 골라낼 수 있겠네요. 이처럼 비교/대조되는 정보와 관련된 문제를 낼 때, '공통점'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디. 정확히는 지문을 읽는 과정에서 이러한 공통점을 '납득'하며 읽는 태도가 필요해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박률	11%	28%	15%	17%	29%

13. ㉠, ㉡와 관련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⑤

이에 정부는 ㉠ 관련 법률 조항을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생성물 표시 의무를 강제하였다.

정부 개입 여부에 대한 엇갈린 논의는 헌법 재판소의 ㉡ 실명확인 사건에서 표면화되었다.
--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 '인공 지능 활용 사업자'에게 '생성물 표시 의무'를 강제하는 ㉠와 '실명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를 제재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다뤘던 ㉡를 이용하라는 문제입니다. 법 지문의 전형적인 사례 제시형 <보기> 문제이니, 늘 하던 대로 지문과 대응시켜 <보기>를 완벽하게 정리해놓은 상태로 선지를 판단해봅시다.

○ 식품 판매자 '갑'은 상품의 효능을 과장한 글과 가상 의료인이 등장하여 효능을 알리는 동영상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작한 후, 인터넷 언론사로 분류된 플랫폼 A에 각각 게시하였다. 두 게시물은 모두 익명으로 게시되었고,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여부를 표시하지 않았다.

- 식품을 파는 사업자 '갑'입니다. 그는 상품의 효능을 과장한 글, 즉 '정보 비대칭' 상황을 심화할 수 있는 광고성 정보와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플랫폼 A에 게시를 했다고 해요. 두 게시물이 모두 익명으로 게시되었다는 것을 보면 ㉠의 '실명확인 사건'을 떠올리게 하지만, 말 그대로 '익명'으로 게시했다는 것이지 플랫폼 A가 실명을 확인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실명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의 '소수 의견'에서는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겠죠.

한편, '갑'은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여부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갑'은 '인공지능 관련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로는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갑'과 같은 이나 이러한 광고를 게시하게끔 한 A와 같은 플랫폼도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도 존재한다는 걸 읽었던 기억이 있죠?

○ 선거를 앞두고 □□정책을 추진하려면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을'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위험이 매우 크며 그러한 주장을 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글을 작성했다. 그 글을 인터넷 언론사로 분류된 플랫폼 B에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실명으로 게시했다. 이후 '을'은 게시자 이름을 달리해 같은 취지의 글을 플랫폼 B에 수차례 올렸다.

- '을'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인터넷 언론사로 분류된 플랫폼 B에 '실명'으로 게시한 상황입니다. 이 자체는 ㉠의 '다수 의견'을 따르든 '소수 의견'을 따르든 큰 문제가 없는 행동이네요. 하지만 이후 '을'은 게시자 이름을 달리해 같은 취지의 글을 플랫폼 B에 수차례 올렸다고 해요. 이는 ㉠의 '소수 의견'에서 우려한 상황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비판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특정 개인에 의해 의도된 정보가 과잉 생산되는 상황이니깐요.

이 정도로 정리해놓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지문을 잘 읽었다면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는 수준이에요.

① '갑'이 게시한 글은 정보 비대칭 상황을 심화하는 과장 광고이지만 그의 글이 확산되더라도 플랫폼 A를 ㉠로 제재하지 못하겠군.

② '갑'이 그의 동영상에 가상의 의료인을 등장시켜 게시한 동영상은 정보 비대칭 상황을 심화하는 허위 광고이지만 '갑'을 ㉠로 제재하지 못하겠군.

명시적 근거	<보기>, 2문단 2번~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아직은 처벌할 수 없지.
해설	광고성 정보가 유통되는 A와 같은 플랫폼이나, 광고성 정보를 제작하여 게시한 '갑'과 같은 정보 제

	공자는 아직 ㉔로 처벌할 수 없죠? 두 선지 모두 같은 맥락으로 지워낼 수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 지능 사용 여부’라는 같은 말이 지문 속에 존재하는 2번 선지의 경우 많은 학생들이 헛갈려 했는데, 지문 해설에서 언급했듯이 ‘엇갈리는 주장’이라는 말을 보고 ㉔와 그 다음 문장의 내용이 ‘의무 부과 대상’의 관점에서 다르다는 것을 미리 생각했다면 어렵지 않게 지워낼 수 있는 선지였을 겁니다. 해야 할 생각을 미리 하면 선지 판단이 빨라진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FAQ	
Q :	지문에서 말한 ㉔의 부과 대상은 ‘인공 지능을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보기>의 ‘갑’ 역시 ‘인공 지능’을 활용해서 동영상을 만들었으니, 인공 지능을 ‘활용한’ 사업자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A :	말씀하셨듯이, 인공 지능을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AI 로봇,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 등을 파는 사업자 말이죠. 하지만 ‘갑’은 그냥 ‘식품’이라는, 인공 지능과는 무관한 제품을 제공하는 사업자에요. 인공 지능을 활용한 ‘광고성 정보’를 제작하여 게시한 ‘정보 제공자’일 뿐인 것입니다. 충분히 헛갈릴 수 있지만, 이 차이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해요!

③ ‘을’이 작성한 글에서 ○○방식 채택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의 필요성을 주장한 내용은 ㉔에 대한 헌법 재판소 다수 의견 취지에 부합하지 않겠군.

명시적 근거	<보기>, 3문단 전체, 5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러네.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걸 경계하는 게 다수 의견 취지지.
해설	<보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을’이 주장하는 바는 결국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는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재할 수 없다는, 즉 웬만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재하기 어렵다는 ㉔에 대한 헌법 재판소 ‘다수 의견’ 취지에 부합하지 않겠죠. ‘다수 의견’의 주장을 정확히 이해했다면 어렵지 않게 지워낼 수 있었을 겁니다.

④ ‘을’이 게시자 이름을 서로 다르게 하여 여러 글을 게시한 것이 △△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면, 이는 ㉔에 대한 헌법 재판소 소수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겠군.

명시적 근거	<보기>, 4문단 3번 문장, 5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특정 개인에 의해 왜곡된 정보가 과잉 생산된 거니까 맞지.
해설	<보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미리 생각했던 내용이기도 하죠? ‘을’이라는 특정 개인에 의해 의도적으로 유통된 정보가 정책 담당자로 하여금 이것이

	시민의 진정한 의견이라고 오인하게끔 만든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㉔에 대한 헌법 재판소 소수 의견의 입장처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	--

⑤ ‘을’이 플랫폼 B에 여러 차례 글을 올리는 과정에서 플랫폼 B가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㉔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결론에 따라 플랫폼 B는 법적 제재를 받겠군.

명시적 근거	<보기>, 5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다수 의견은 실명 확인 절차가 플랫폼 처벌의 근거라고 보지는 않았는데?
해설	‘을’이 플랫폼 B에 여러 차례 글을 올리는 과정에서 플랫폼 B가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㉔에 대한 헌법 재판소 다수 의견은 그러한 인터넷 언론사를 제재하는 법률 규정이 위헌이라고, 즉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답은 굉장히 쉽게 나오는 모습이에요.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① 화제 check :	독서 지문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의 틀’을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② 정의 인식 :	단어의 의미를 살린 상태로, 지문에 제시된 정의와 붙여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납득’해서 본인의 말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해요.
③ 재진술 인식 :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아예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 ‘같은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정보량’을 줄이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④ 비교/대조 :	비교되는 대상이 나오면, ‘공통점’과 ‘차이점’ 중심으로 읽어 나가면 됩니다.
⑤ 사례-원리 연결 :	모든 사례는 어떠한 추상적인 원리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둘을 연결지며 확실하게 이해하고 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지문 내용 총정리

'정보 비대칭'이라는 개념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관련된 화제 중심으로 정보를 처리하며, 그 과정에서 '사례'와 '예외'라는 법 지문의 포인트에 맞춰 읽어 내고, 최종적으로 문장 하나 하나 정확하게 '납득'할 것을 요구한 전형적인 평가원 지문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독해 태도를 모두 요구하고 있고, 선지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뚫어냈는지에 따라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지문이었어요. 이러한 포인트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보도록 합시다.

생각의 전개 <과학·기술 지문은 이렇게 읽는다.>

2027.06 [14~17] 과학+기술 '라플라스 식의 활용' ☆☆☆

1문단

①우리는 물방울, 비눗방울, 기포 등이 구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②구형은 동일한 부피에서 표면적이 최소인 형태인데 이는 액체 분자 간의 인력으로 발생하는 표면 장력의 작용 때문이다. ③액체 방울에서 방울의 외부 압력과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의 합이 내부 압력과 균형을 이룰 때 방울은 그 크기를 유지한다. ④이때 내부 압력은 액체 방울을 팽창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고, 외부 압력과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은 액체 방울을 수축시키는 힘으로 작용한다. ⑤이들 간의 관계는 라플라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⑥이 식에 따르면 액체 방울의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의 차이는 구형의 액체 방울에서 표면 장력에 정비례하고 액체 방울의 반지름에 반비례한다.

①~② #사례-원리 연결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물방울, 비눗방울, 기포와 같은 사례를 들면서, '구의 형태'를 취하는 방울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형'은 동일한 부피에서 표면적이 최소인 형태라고 해요. 같은 부피일 때 길쭉하게 늘어난 형태나 울퉁불퉁한 형태보다는, 모든 방향으로 고르게 뭉친 구형의 겉넓이가 더 작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액체 분자 간의 인력으로 발생하는 '표면 장력'의 작용 때문이라고 합니다. 액체 분자들끼리 당기려는 힘이 있을 것인데, 이 힘이 액체가 바깥쪽으로 퍼지지 않도록 잡아주면서 '표면'에 작용하는 '장력'이 되는 것이죠. 액체 분자들끼리 잡아 당기면서 표면을 구형으로 만든다는 것,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겠죠?

③~④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재진술

이때 액체 방울에서 '외부 압력+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내부 압력'이 되어야 방울은 그 크기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부 압력'은 액체 방울을 팽창시키는 '내부'의 '압력'이고, '외부 압력'은 액체 방울을 '수축'시키는 '외부'의 압력일 것입니다. 또한 액체의 '표면'에 있는 액체 분자들은 계속해서 내부의 분자들에게 끌릴 것입니다. 이렇게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은 액체 방울을 '수축'시키는 힘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단어의 의미를 살리고, 앞에서 제시한 정보들을 끌고 오면서 확실하게 납득할 수 있어야 해요.

⑤~⑥ #정의 제시 #재진술

이들 간의 관계는 '라플라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식에 따르면, 먼저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의 차이'는 구형의 액체 방울에서 '표면 장력'에 정비례합니다. 앞에서 구형의 액체 방울이 크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부 압력+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내부 압력'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곧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의 차이=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과 같은 말이 되네요. 이 식을 기반으로 하면 좌변과 '표면 장력'이 정비례한다는 것은 당연하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의 차이'는 액체 방울의 반지름에 반비례합니다. 이 차이는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과 같아요. 이때 외부 압력이 그대로인 상태를 가정하면, 반지름이 클수록 내부 압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내부와 외부 압력의 차이'도 작아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하이라이트 문장

⑥이 식에 따르면 액체 방울의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의 차이는 구형의 액체 방울에서 표면 장력에 정비례하고 액체 방울의 반지름에 반비례한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엮어, 나름의 논리를 만들면서 최대한 납득해야 합니다. 납득하지 못하면 정리라도 확실하게 해야 해요. 과학·기술 지문이 늘 그렇듯, 초반부 정보를 확실하게 정리해야 뒷부분이 이해가 될 테니까요.

2문단

①라플라스 식은 사람이 호흡할 때 폐포에 작용하는 압력과 표면 장력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때 유용하다. ②폐포에는 그 내부의 압력과 인체 외부 공기의 압력의 차이로 인해 공기가 드나든다. ③이는 공기가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④폐포를 둘러싸고 있는 액체층의 표면 장력은 폐포를 수축하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⑤그런데 지질과 단백질로 구성된 계면 활성제가 분비되어 액체층의 표면 장력을 낮춘다. ⑥이에 따라 폐포의 확장이 쉬워진다.

① #카테고리 나누기

'라플라스 식'을 바탕으로 사람이 호흡할 때 '폐포'에 작용하는 압력과 표면 장력 사이의 관계도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카테고리가 나왔으니 확실하게 인식하면서, 앞에서 납득한 '라플라스 식'의 내용을 활용 준비를 해봅시다.

②~③ #정의 제시 #재진술

지문의 흐름을 고려할 때, '폐포' 역시 구형일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하게도 내부의 압력과 외부 공기의 압력 차이, 즉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이 존재할 것이예요. 이는 공기가 드나드는 역할을 하는데, 그 원리는 2017학년도 9월 모의평가 '열기관'의 '열효율' 지문에서도 나왔던 <높은 쪽-낮은 쪽> 메커니즘이네요. 계속해서 활용되는 식이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의 차이'이므로, 내부 압력이 외부 압력에 비해 더 큰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결국 내부 압력이 외부 압력보다 크기에 '폐포'를 통해 공기가 드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과학적으로는 내부 압력이 더 클 때 공기가 나가고, 외부 압력이 더 클 때 공기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지문의 내용만 가지고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에 단순하게 설명한 것으로 이해해주세요.)

④~⑥ #정의 제시 #재진술

앞에서도 확인했듯이, 구형인 '폐포'를 둘러싸고 있는 액체층의 표면 장력은 폐포를 수축하게 합니다. 그런데 지질과 단백질로 구성된 '계면 활성제'라는 것이 분비되면 액체층의 '표면 장력'을 낮춘다고 해요. 일단 '계면 활성제'의 정의부터 확실하게 체크하고, 이것이 '표면 장력'을 낮춰 폐포의 확장을 돕는다는 것을 납득하셔야 합니다. '표면 장력'은 곧 폐포를 수축시키는 압력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작아지면 당연히 폐포는 확장할 수 있겠죠. 이렇게 폐포가 수축하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표면 장력'이 변할 것이고, 이는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의 차이'를 변화시키겠네요. 결국 이 차이가 클수록 더 많은 공기가 드나든다는 식으로 폐포의 압력과 표면 장력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앞에서 했던 말들의 재진술에 불과하니, 확실하게 납득할 수 있겠죠?

하이라이트 문장

①라플라스 식은 사람이 호흡할 때 폐포에 작용하는 압력과 표면 장력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때도 유용하다.

새로운 카테고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가 바뀌어도 결국 '라플라스 식'이라는 화제의 내용을 재진술하는 것에 불과할 것이라 생각해 야 해요. 최대한 앞 문단의 내용과 연결지어 정보량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읽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3문단

①라플라스 식은 두 기포가 합쳐지는 경우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②크기가 서로 다르고 구성 물질은 같은 두 기포가 접하여 하나로 합쳐질 때 한쪽 기포에서 다른 쪽 기포로 공기가 이동한다. ③이 결과로 두 기포가 합쳐져 기존의 기포보다 더 큰 기포 하나가 만들어진다.

①~③ #카테고리 나누기 #재진술

이번엔 '두 기포가 합쳐지는 경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카테고리가 만들어지는 순간이네요. 크기가 서로 다르고 구성 물질은 같은 두 기포가 접하여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입니다. 이 상황을 '라플라스 식'의 내용, 즉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의 차이'가 '표면 장력'에 정비례하고 '반지름'에 반비례한다는 내용과 엮어서 이해해야 해요.

먼저 두 기포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으로부터 '반지름'이 다르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반지름'이 더 큰 기포의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의 차이'가 더 작겠지요? 이때 두 기포는 '접하는' 상황이기엔 처한 환경이 같을 것입니다. 결국 '외부 압력'이 같다고 가정할 수 있겠고, '반지름'이 더 큰 기포의 내부 압력이 작은 기포의 내부 압력에 비해 더 작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높은 쪽→낮은 쪽> 메커니즘에 따르면, '반지름'이 더 작은 기포로부터 큰 기포 쪽으로 공기가 이동하면서 합쳐진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다 같은 말이에요!

하이라이트 문장

②크기가 서로 다르고 구성 물질은 같은 두 기포가 접하여 하나로 합쳐질 때 한쪽 기포에서 다른 쪽 기포로 공기가 이동한다.

생략되어 있는 내용을 앞 문단의 내용으로부터 스스로 추론하길 요구한 어려운 문단입니다. '크기가 서로 다르'라는 말이 앞에서 나온 '반지름'이 서로 다르다는 말과 '사실상' 같은 말임을 생각하며 연결지을 수 있어야 해요. 기술문제를 풀면서 무수히 많이 연습했던 내용이니 충분히 해낼 수 있었을 거예요.

4문단

①실생활에서 라플라스 식과 관련된 사례로 잉크젯 프린터를 들 수 있다. ②잉크젯 프린터에서는 분사 장치의 노즐을 통해 잉크가 분사된다. ③이때 분사된 잉크는 공기 중에서 방울의 형태가 되며 이 잉크 방울은 종이에 도달한다. ④라플라스 식에서 알 수 있듯이, 이때의 구형의 잉크 방울에서도 내부 압력은 외부 압력보다 높다.

①~④ #카테고리 나누기 #재진술

이번엔 '라플라스 식'의 실생활에서의 활용으로, '잉크젯 프린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프린터에서는 분사 장치의 노즐을 통해 방울, 즉 '구형'의 잉크 방울을 분사한 뒤 종이에 도달하게 하는 원리를 활용한다고 해요. 잉크 방울이 '구형'을 유지한다면, 당연히 '내부 압력'은 '외부 압력'보다 높을 것입니다.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이 작용할 테니까요.

5문단

①구형의 잉크 방울이 형성되는 것만으로 인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②잉크 방울이 노즐에서 나와서 목표 지점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도착하는지의 정도는 '오네소르케 수'로 표현된다. ③오네소르케 수는 <잉크의 점도, 표면 장력, 밀도와 잉크젯 프린터의 노즐 지름>에 의해 결정된다. ④점도란 끈적거림의 정도를 말하며 액체가 끈적끈적할수록 점도가 크다. ⑤오네소르케 수는 <잉크의 점도가 클수록 크고, 잉크의 표면 장력, 잉크의 밀도, 노즐의 지름, 이 세 값의 곱이 클수록 작다.> ⑥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을 알맞게 조절함으로써 안정적인 인쇄가 가능하다.

①~② #카테고리 나누기

'내부 압력'이 '외부 압력'보다 큰 구형의 잉크 방울이 형성되는 것만으로 인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오네소르케 수'라는 것을 고려해야 안정적인 인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으니 확실하게 체크하고, '오네소르케 수'를 이해할 준비를 해보도록 합시다.

③~⑥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재진술

'오네소르케 수'는 잉크의 '점도', '표면 장력', '밀도', '잉크젯 프린터의 노즐 지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기술 지문의 구성 요소 나열 형태의 서술이요? 하나하나 납득해봅시다. 먼저 '점도'입니다. 단어의 의미 그대로 끈적끈적한 정도를 말하는데, 이 점도가 클수록 '오네소르케 수'가 크다고 해요. 나아가 나머지 세 요소의 곱이 클수록 작다고 합니다. 그냥 정리만 해도 충분하긴 하지만, 공부하는 과정이니 확실하게 납득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점도는 끈적거림의 정도입니다. 잉크가 끈적끈적할수록 노즐을 빠져나오기도 어렵고, 방울의 형태로 깔끔하게 떨어져 나가기도 어렵겠지요? 그러니 점도가 클수록 '오네소르케 수'가 커진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반면 '표면 장력', '밀도', '노즐의 지름'은 '오네소르케 수'를 작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표면 장력'이 크면 잉크 방울이 수축하려는 힘이 커집니다. 이에 같은 점도의 잉크라도, 표면 장력이 크면 끈적거림 때문에 흐트러지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해질 수 있겠지요. 그래서 표면 장력이 클수록 오네소르케 수는 작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밀도가 크다는 것은 같은 부피의 잉크가 더 묵직하다는 뜻입니다. 한 번 움직이기 시작한 잉크가 그 움직임을 유지하려는 성질이 커진다고 볼 수 있으니, 같은 점도라면 끈적거림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아질 거예요. 그래서 밀도가 클수록 오네소르케 수는 작아지는 거죠.

'노즐의 지름'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같은 잉크라도 좁은 노즐을 통과할 때는 끈적거림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반대로 노즐의 지름이 크면 잉크가 빠져나갈 통로가 넓어지므로, 같은 점도라도 끈적거

림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노즐의 지름이 클수록 오네소르게 수는 작아지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점도는 잉크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끈적거림이므로 '오네소르게 수'를 크게 만들고, 표면 장력·밀도·노즐 지름은 그 끈적거림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 드러나게 만드는 요인들이므로 '오네소르게 수'를 작게 만든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점도가 클수록 크고, 표면 장력·밀도·노즐 지름의 곱이 클수록 작다'는 관계를 납득할 수 있겠죠. 결국 기본적으로 '오네소르게 수'가 클수록 안정적인 인쇄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름의 논리를 만들어서 확실하게 납득하려고 애를 써야 해요. 이런 시도를 해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문장

⑤오네소르게 수는 잉크의 점도가 클수록 크고, 잉크의 표면 장력, 잉크의 밀도, 노즐의 지름, 이 세 값의 곱이 클수록 작다.

납득하지 못하고 그냥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장을 나름의 논리를 만들어서 납득해보는 경험을 해보셔야 해요. 그렇게 쌓인 경험이 어려운 과학·기술 지문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어질 테니까요.

6문단

①일반적으로 오네소르게 수의 범위가 대략 0.1에서 1.0 사이이면 안정적인 인쇄가 가능하다. ②가령 점도가 커서 오네소르게 수가 이 범위보다 크게 되면 잉크가 노즐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 ③이와 반대의 경우, 수많은 위성 잉크 방울이 생겨 원치 않는 오염이 발생한다. ④오네소르게 수에 영향을 주는 네 요인에 의해 오네소르게 수가 결정되면 이로부터 안정적인 인쇄 가능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①~④ #정의 제시 #사례-원리 연결 #재진술

이러한 '오네소르게 수'의 범위가 대략 0.1에서 1.0 사이이면 안정적인 인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냥 클수록 좋은 게 아니라, 적당한 범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었네요. 만약 점도가 너무 커서 '오네소르게 수'가 지나치게 커져 버리면, 잉크가 아예 노즐에 눌러붙어 밖으로 나오지도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점도가 너무 작다면 그 방울이 노즐에서 그냥 튕겨져 나오는 방식으로 분사될 것이고, 결국 하나의 잉크 방울에 다른 잉크 방울들이 마치 '위성'처럼 튕겨져 나와 오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오네소르게 수'에 영향을 주는 네 요인을 통해 안정적인 인쇄 가능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납득할 수 있겠죠?

하이라이트 문장

①일반적으로 오네소르게 수의 범위가 대략 0.1에서 1.0 사이이면 안정적인 인쇄가 가능하다.

이 문장을 보고서 단순히 '오네소르게 수'를 크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문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문장의 내용만 반복할 것임을 생각해야 해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2%	10%	7%	19%	63%

14. 뒷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㉟

① 액체 방울이 구형을 이루는 것은 액체에 표면 장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명시적 근거	1문단 1번~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표면 장력' 때문에 액체 방울이 구형을 이룬다는 것, 처음부터 제시되었던 핵심 정보죠?

② 동일한 부피의 액체는 구형을 이루고 있을 때가 다른 형태를 이루고 있을 때보다 표면적이 작다.

명시적 근거	1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구형의 표면적이 제일 작지.
해설	동일한 부피일 때 표면적이 최소인 형태가 '구형'이라는 것, 확실하게 납득했던 '구형'의 정의 그 자체입니다.

③ 호흡이 일어나려면 폐포 내부 압력과 인체 외부 압력의 차이가 발생해야 한다.

명시적 근거	2문단 1번~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 차이로 인해 공기가 드나들지.
해설	폐포 내부 압력과 인체 외부 압력의 차이 때문에 공기가 드나들며 호흡이 일어난다는 것 역시 확실하게 납득했던 내용이지요?

④ 지질은 폐포를 수축하게 하는 압력을 약화하는 물질의 구성 성분 중 하나이다.

명시적 근거	2문단 4번~6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계면 활성제!
해설	'지질'과 단백질로 구성된 '계면 활성제'가 폐포를 수축하게 하는 '표면 장력'을 낮춘다는 것, 역시 확실하게 정리했던 내용이었어요.

⑤ 잉크젯 프린터에서 노즐은 작은 잉크 방울을 합쳐 큰 잉크 방울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명시적 근거	4문단 2번~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뭔 소리야.
해설	잉크젯 프린터의 노즐은 잉크를 분사하는 역할을 하지, 작은 잉크 방울 합쳐 큰 잉크 방울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노즐에서 잉크가

분사된다는 전제 속에서 '오네소르게 수'를 결정하는 요인들의 영향을 납득했으니, 보자마자 '실전에서 판단 과정'과 같은 반응이 나와야 해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12%	5%	13%	55%	15%

15.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이 결과로 ㉠ 두 기포가 합쳐져 기존의 기포보다 더 큰 기포 하나가 만들어진다.

- '내부 압력'이 더 큰 작은 기포에서 큰 기포 쪽으로 공기가 이동하면서 더 큰 기포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흐름을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요.

① 기포 안의 공기는 큰 기포에서 작은 기포로 이동한다.

명시적 근거	1문단 6번 문장, 2문단 3번 문장, 3문단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작은 기포에서 큰 기포로 이동하지.
해설	미리 생각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틀렸음을 바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지문에서 이걸 미리 생각하지 못했다면, '큰 기포'와 '작은 기포'의 차이점이자 이 지문에서 중요한 변수로 나왔던 '반지름'을 떠올리며 사고를 이어가야 합니다. 지문에서 추론을 요구한다는 것을 생각하며 미리 이를 떠올리는 게 최선이고, 선지에서 묻는 것으로부터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조합하는 게 차선이에요. 어떤 경우든 핵심은 결국 '해야 할 생각의 전개'임을 잊지 맙시다.

② 작은 기포와는 달리, 큰 기포에는 표면 장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명시적 근거	1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기포면 표면 장력은 당연히 작용하지.
해설	크기에 상관없이 기포가 '구형'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은 '표면 장력' 덕분입니다. 두 기포에 모두 '표면 장력'이 작용한다는 것은 대전제예요.

③ 접해 있는 두 기포 간에 공기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두 기포 내부의 압력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명시적 근거	2문단 3번 문장, 3문단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압력 차이 때문에 이동하는 거지.
해설	작은 기포의 내부 압력이 큰 기포에 비해 크기 때문에, 그 차이를 바탕으로 공기가 이동하여 기포가 합쳐지는 것이었죠? 2문단에서부터 이야기한 '공기의 이동 방법'을 정확히 납득했어야 합니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④ 새롭게 만들어진 기포의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는 처음의 큰 기포의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보다 작다.

명시적 근거	1문단 6번 문장, 3문단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반지름이 커진 거니까 내부 외부 차이는 작아지지.
해설	새롭게 만들어진 기포는 기존의 큰 기포보다 더 큰 기포입니다. 즉, '반지름'이 더 커진 기포예요. 그런데 선지에서 묻는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는 반지름에 반비례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새롭게 만들어진 기포의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는 작아지겠네요. 가볍게 답으로 골라주셔야 합니다.

⑤ 처음의 두 기포와 달리, 나중에 생성된 기포의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는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보다 크다.

명시적 근거	1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애초에 저 둘은 같은 값인데?
해설	처음의 두 기포뿐만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기포도 그 크기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의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이들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만든 '라플라스 식'을 정확히 납득했다면 어렵지 않게 지워낼 수 있는 선지네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5%	11%	60%	13%	11%

1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③

잉크젯 프린터와 잉크를 구입한 직후, 시험 삼아 문서 한 장을 인쇄했을 때, 빨간색 잉크와 파란색 잉크 모두 안정적으로 출력되었다. 두 달이 지난 후에 다시 문서를 인쇄하니 빨간색 잉크가 노즐에서 나오지 않았다. 확인해 보니 빨간색 잉크가 구입했을 때보다 더 끈적끈적해서, 첨가제를 넣어 끈적거림의 정도를 조절하여 다시 인쇄하였다. 이 시점에 파란색 잉크는 구입했을 때와 차이가 없었다. 이후 세 달이 더 지난 후에도 문서를 인쇄해 보았다.

(단, 두 잉크를 내보내는 노즐은 모양과 크기가 동일하다.)

- 지문에서 언급한 '잉크젯 프린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빨간색 잉크와 파란색 잉크가 모두 안정적으로 출력되었는데, 두 달이 지난 후 빨간색 잉크의 점도가 너무 커져서 인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이는 '오네소르게 수'가 1.0 이상으로 지나치게 커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첨가제를 넣어 다시 인쇄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파란색 잉크는 차이가 없었다고 해요. 여전히 '오네소르게 수'가 0.1에서 1.0 사이에 있었다는 의미겠죠? 이 정도로 정리한 상태로 가볍게 문제를 풀어봅시다.

① 구입 당시의 빨간색 잉크의 오네소르계 수와 달리, 구입 당시 파란색 잉크의 오네소르계 수는 대략 0.1에서 1.0 사이에 있었겠군.

명시적 근거	<보기>, 6문단 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둘 다 안정적으로 인쇄됐다며.
해설	구입 당시에는 빨간색 잉크와 파란색 잉크 모두 안정적으로 인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즉, 두 잉크 모두 ‘오네소르계 수’가 0.1에서 1.0에 사이에 있었다는 것이죠.

② 빨간색 잉크에 첨가제를 넣어 인쇄가 문제없이 잘 이루어졌다면, 첨가제를 넣어 잉크의 오네소르계 수가 더 커진 것이겠군.

명시적 근거	<보기>, 6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점도를 낮췄으니 오네소르계 수는 작아진 거지.
해설	두 달이 지난 시점에서 빨간색 잉크는 ‘점도’가 너무 높아져 ‘오네소르계 수’가 커진 것이 문제였습니다. 첨가제를 넣어 인쇄가 문제없이 잘 이루어졌다면, 이는 ‘오네소르계 수’를 낮춰 1.0 이하로 만든 것이라고 봐야겠죠.

③ 파란색 잉크의 점도와 표면 장력은 유지한 채, 밀도를 두 배로 높이고 노즐의 지름을 반으로 줄인다면 파란색 잉크의 오네소르계 수는 변함이 없겠군.

명시적 근거	<보기>, 5문단 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곱이 그대로니까 변함이 없네.
해설	‘오네소르계 수’를 결정하는 두 가지 요인은 ‘점도’와 ‘표면 장력×밀도×노즐의 지름의 곱’입니다. 여기서 ‘점도’와 ‘표면 장력’은 그대로인데, ‘밀도’를 두 배로 높이고 ‘노즐의 지름’을 반으로 줄인다면 결과적으로 ‘오네소르계 수’를 결정하는 요인들의 변화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럼 당연히 ‘오네소르계 수’에도 변함이 없겠네요. 가볍게 답으로 골라 낼 수 있겠습니다.

④ 구입 당시와 달리, 두 달이 지난 후 파란색 잉크의 오네소르계 수는 인쇄의 적정 범위를 벗어났겠군.

명시적 근거	<보기>, 6문단 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차이가 없었다며.
해설	두 달이 지난 후, ‘파란색 잉크’는 구입 당시와 차이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구입 당시에 인쇄가 안정적으로 잘 되었다고 했으니, 이는 ‘오네소르계 수’가 계속해서 인쇄의 적정 범위인 0.1~1.0을 유지했음을 뜻한다고 할 수 있겠죠? ‘오네소르계 수’의 적정 범위를 정확하게 납득하고 있는지 묻고 있네요.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⑤ 구입 후 다섯 달이 지났을 때, 파란색 잉크가 구입할 당시의 밀도와 표면 장력은 변하지 않았으나 더 끈적거리는 성질로 변화했다면 파란색 위성 잉크 방울이 생성될 수 있겠군.

명시적 근거	<보기>, 5문단 2번~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점도가 높아지면 아예 잉크가 나오지도 않는데?
해설	구입 후 다섯 달이 지난 상황입니다. 이때 ‘파란색 잉크’의 밀도와 표면 장력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점도’만을 높여 보자는 것이네요. 그런데 선지에서 묻는 ‘위성 잉크 방울’은 점도가 너무 낮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오염이었습니다. 오히려 점도를 높이면 잉크가 아예 노즐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93%	1%	1%	2%	3%

17.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 올라오는
- ㉡ ㉡: 나타낼
- ㉢ ㉢: 이루어진
- ㉣ ㉣: 다다른다
- ㉤ ㉤: 맞춤으로써

물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 ① 화제 check : 독서 지문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의 틀’을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 ② 정의 인식 : 단어의 의미를 살린 상태로, 지문에 제시된 정의와 붙여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납득’해서 본인의 말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해요.
- ③ 재진술 인식 :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아예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 ‘같은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정보량’을 즐기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 ④ 카테고리 나누기 : 정보들의 범주가 나뉠 때, 그들이 서로 다른 카테고리에 속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각 카테고리에 맞춰 정보를 정리하면 훨씬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⑤ 초반 정보 견디기 : 과학·기술 지문에서는 초반부에 정보를 잔뜩 던지고, 후반부에는 그 정보를 활용해서 어떤 논의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초반부의 정보만 잘 견디면 뒤에서 편해집니다.

⑥ 비례/증감 관계 :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납득하며 읽어야 합니다. 아무 생각없이 적혀 있는 그대로 정리하기만 하면 이를 활용한 어려운 지문/문제들을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예요.

지문 내용 총정리

비례/증감 관계들을 바탕으로 초반부 정보를 쌓고, 이를 후반부 정보의 납득에 사용할 것을 요구한 전형적인 지문이었습니다. 나아가 15번 문제 등에서 지문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의 추론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훨씬 더 어렵게 출제될 미래의 지문에 대한 대비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결국 핵심은 납득하고, 해야 할 생각을 전개하며 읽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잊지 말고 꾸준하게 연습하도록 합시다.

생각 워크북 <산문문학 해결하기>

2027.06 [18~21] 현대소설 '나룻배 이야기' ☆

<보기> 확인

— <보 기> —

이 작품에는 인물의 모습을 묘사하는 진술과 그 인물 내면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진술이 인접한 경우가 있다. 이런 서술은 하나의 진술이 다른 진술의 의미를 보완하여, 독자로 하여금 인물의 감각이나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거나, 인물이 처한 복합적 상황을 이해하게 한다.

사실 지문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보기>는 아닙니다. 인물의 모습을 묘사하는 진술과 그 인물 내면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진술이 인접한 경우를 찾으려 읽는 것도 쉽지 않고, 그걸 찾는다 해도 '내면세계에 대한 공감'이라는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진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하나의 진술이 다른 진술의 '의미'를 보완한다는 말에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문학에서의 '의미'는 곧 '인물의 상황과 내면세계'를 뜻한다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인물의 감각이나 감정, 즉 '내면세계'나 인물이 처한 복합적 '상황'을 이해하게 한다는 설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공부가 제대로 되었다면, 이 <보기>는 정말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보기>로 느껴져야 해요.

지문 독해

아들 **천달이**의 안부를 모르는 **양 생원**은 절로 **한숨**이 쉬어졌다. 천달이뿐 아니라, **두칠이** **용팔이**한테서도 떠나간 이후로 전혀 소식이 없었다.

<도토리가 말짱 떨어지자, 하늘에 기러기가 물어 들었고, 희뜩희뜩 눈 잎사귀가 휘날려 왔다.> 그리고 동네에 **참 슬픈 일**이 하나 생겼다. **모랑댁**이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다. 방 안에 한 방 피를 토해 놓고 쓰러지면서도 **모랑댁**은 곧장 **두칠이**를 **목베어** 불렀다는 것이다. **두칠이**의 어린 동생들이 참 불쌍하게 되었다고, **잡꾼이**는 누구보다도 정말 가슴 아파했다.

아들인 '천달이'의 안부를 몰라 한숨 쉬는 '양 생원'의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안부를 모르면 당연히 한숨이 나오겠죠? 한숨을 쉬는 '양 생원'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 마음에 공감해줘야 합니다. 아들 '천달이' 외에 '두칠이', '용팔이'한테서도 소식이 없는 상황이에요. 다들 어디를 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젊은이들이 잔뜩 떠난 뒤 소식이 없어 초조한 마음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겠죠?

나아가, < > 표시한 부분에서 겨울의 배경 묘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배경 묘사가 보여 주고자 하는 건 무언가 쓸쓸한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쓸쓸한 분위기가 제시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동네에 참 '슬픈 일'이 하나 생겼다고 해요. '모랑댁'이라는 인물이 세상을 떠난 것이죠. '모랑댁'은 죽기 직전에 떠난 뒤 소식을 알 수 없던 인물 중 하나인 '두칠이'를 목베어 불렀다고 합니다. 이 마음에 공감해보면, 아마 '모랑댁'이 '두칠이'의 가족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한편 '두칠이'의 어린 동생들이 불쌍하게 되었다며 '갑분이'는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모랑댁'과 '갑분이' 모두 '두칠이'의 부재와 관련해 슬픈 감정을 보였지만, 그 깊이가 다르다는 게 느껴질 것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니다. 이렇게 깊이가 다른 내면세계에 공감해보면, 자연스럽게 '갑분이'는 '두칠이'의 가족까지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죽기 직전까지도 목베어 '두칠이'의 이름을 불렀던 '모랑댁'과, 그저 안타까워하기만 하는 '갑분이'의 슬픔의 깊이에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인물 관계 파악이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읽어내야 합니다.

<함박눈이 마을을 덮었다.> 하루는 또 총을 맨 **순경** 한 사람과 먼 서기에 틀림없는 **양복쟁이** 하나가 강가에 와서 섰다. **잡꾼이**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지난봄**의 일이 생각났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나룻배에 태우지 않을 수 없었다. 마을에 들어온 그들은 아무개 아무개네 집이 어디냐고 하면서 눈에 묻힌 **골무살***을 돌아다녔다. 그런 일이 있던 **사흘 후**, 또 두 사람의 젊은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마을을 떠나갔다. 영장이 나왔던 것이다. **동식이**와 **수만이**였다.

* 골무살: '골목'의 사투리.

어느덧 '함박눈'이 내리는 한겨울이 되었습니다. 어느날 총을 맨 '순경' 한 사람과 '양복쟁이' 하나가 강가에 와서 섰는데, '삼바우'는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고 해요. '지난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고, 그 기억이 부정적이나 가슴이 내려앉는 심리를 보인 것이겠죠? 그러나 공무를 집행하는 그들을 배우 태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마을에 들어온 그들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사람을 찾았고, '사흘 후' 영장이 나와 '동식이'와 '수만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마을을 떠나갔다고 해요. 군대에 가는 것이니 당연히 소리를 지르며 절규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에 공감할 수 있겠죠? 나아가 이미 떠나갔다가 소식이 끊긴 '천달이', '두칠이', '용팔이' 등도 군대에 간 것이며 '지난봄'에 이들이 차출되었다는 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공감'하며 자연스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중략 부분의 줄거리] 두칠이가 불구의 몸이 되어 오고 얼마 후에 천달이는 전사하여 유해만 돌아온다. 천달이의 유골 매장을 도와준 삼바우는 술을 마시고 취기가 오른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입니다. 결국 '두칠이'는 불구의 몸이 되어 왔고, '양 생원'의 아들인 '천달이'는 전사합니다. 이들이 가는 곳은 단순한 군대가 아니라 전쟁터였던 거예요. '천달이'의 유골 매장을 도와준 '삼바우'는 당연히 마음이 울적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천달이'를 죽음으로 이끌 이들을 배에 태워 데려온 것이나 마찬가지이니깐요. 이에 술을 마시고 취기가 오른 상황입니다.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읽어주셔야 해요.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하얗게 돌아간 발모퉁이를 까만 그림자가 두 개 걸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삼바우는 이마에 손을 얹고 그쪽을 바라보며 으으윽! 크게 트림을 했다. 혹시 우리 용팔이 아니냐? 용팔이가 오면 혼자 울 건데…… 보자, 동식이랑 같이 오는 거 아니냐? 그렇잖으면 동식이하고 수만이 가들 둘 인강? 삼바우는 두 눈을 곧장 껌벅거리었다. 그러나 점점 가까워지는데 보니, 그것은 용팔이도 아니고, 동식이도 수만이도 아니다. 자세히 보니, < 하나는 총을 어깨에 메고 있고, 하나는 양복쟁이에 틀림없다.>

"이크!"

삼바우는 가슴이 덜컥했다. 결코 반가운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다. 또 오는구나. 또 누구 데려갈라고……. 술기와 함께 온 몸의 피가 얼굴로 치솟는 듯했다. 입술도 부들부들 떨렸다. 벌써 땀이나 데려갔노 말이다. 데려가서 두철이는 그 꼬라지를 만들어 놓았지, 천달이는 돌려준다는 것이 빠다귀뿐이지, 더구나 우리 용팔이한테서는 소식도 없지, 동식이, 수만이도 마찬가지로, 그만 하면 됐지, 또 누구 데려갈라고, 염치도 없는 것들 같으니……. 삼바우는 뿌드득 어금니를 문다.

오늘도 어김없이 배를 지고 있는 '삼바우' 앞에 까만 그림자가 두 개 걸어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술에 취한 '삼바우'는 혹시 '용팔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 '우리 용팔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보니 '삼바우'는 '용팔이'의 아버지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겠죠? '용팔이'가 아니라면 '동식이' 혹은 '수만이'가 아닌가 하며, 어쨌든 전쟁터로 떠난 마을의 젊은이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무사 귀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투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들은 총을 멘 '순경'과 '양복쟁이'였습니다. 기다리는 이들은 돌아오지 않고, 마을의 젊은이들을 잡아갈 이들과 또 나타난 것이예요. 이에 '삼바우'는 당연히 가슴이 덜컥하겠죠. 그러면서 술기가 올라오며 분노를 느끼는 모습입니다. 또 누구 데려가려고 그러는 것인지 화가 나는 '삼바우'의 모습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겠죠?

“안되지, 안 돼!”
주먹을 불끈 쥐고, 한쪽 발로 땅을 팡! 내리구른다. 기세가 이만저만 아니다. 그러나 어찌 된 영문인지 총을 멘 사람과 양복쟁이의 얼굴이 또렷하게 바라보일 만큼 가까워지자, 그만 아랫도리가 후들후들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A]** 뿌드득 물었던 어금니도 덜덜 떨리고, 주먹에서도 손가락들이 제가끔 힘없이 풀려 나간다. 하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두 눈에 뜨거운 것이 팡 돈다. 그러나 그 순간, 참 회한한 생각이 하나 뒤통수를 갈기고 지나갔다.
“옳지!”
삼바우는 궁둥이를 탁 치고, 고의춤을 불끈 추켜올렸다.

주먹을 불끈 쥐고 발로 땅을 내리구르며 분노를 표출하는 '삼바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까이 다가오자, 아랫도리·어금니가 흔들리고, 손가락의 힘도 풀립니다. 사실 일개 뱃사공의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자, 눈물이 나는 '삼바우'의 모습입니다. 무력감을 느끼며 젊은이들에 대한 미안함, 슬픔 등 여러 감정이 겹치는 '삼바우'에게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순간, '회한한 생각'이 하나 뒤통수를 갈기고 지나갑니다. '삼바우'는 과연 어떻게 하려는 걸까요?

얼른 닳줄을 풀어 배 안에 던지고, 가볍게 몸을 날렸다. 그리고 후다닥 노를 잡고 마구 물을 휘젓는다. 깜짝 놀란 배는 어지럽게 흔들리다가 머리를 불끈 물 위로 쳐든다. 삼바우는 아랫입술을 질끈질끈 깨물며 있는 힘을 다한다. 이마에 기를 같은 땀이 끈적끈적 내배인다. 배는 자세를 가다듬고 신나게 내달는다.
강 길을 끊어 버리고 만 것이다.
손님도 태우지 않고 부리나케 떠나는 배를 보자, 두 사람은 눈을 휘둥그레 가지고 달려오며 뱃다 고향을 지른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여보! 아 여보오——”
“여기 탈 사람 있소! 좀 기다리쇼!”
그러나 삼바우는 입언저리로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혀끝으로 짙 훔으며 고소하게 웃는다. 어디 탈 테면 한번 타 보지, 흥! 쿵 방귀를 팡 뀌어 준다.

'삼바우'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그냥 '강 길'을 끊어 버리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 배를 모는 '삼바우'의 모습, 이에 당황한 두 사람의 소리를 지르는 모습, 이에 희열을 느끼며 더 열심히 달려가는 '삼바우'의 모습 모두 어렵지 않게 공감할 수 있는 모습들이죠?

“아, 저놈의 영감쟁이가 돌았나? 우쨌노?”
“아, 이리 빨리 배를 안 갖다 댈 끼가?”
두 사람은 얼굴이 빨개 가지고 주먹으로 샷대질을 해쌍는다. 삼바우는 이만저만 통쾌하지가 않았다. 자기에게도 이런 용기가 있었는가 싶으니 스스로 놀람기도 했다. 안 되지, 안 돼, 안 되고말고. 마을에서 나룻배를 만들 때는 마을 사람들 편리하라고 만들었지, 누가 저거 자식 잡아가라고 만든 줄 아냐? 흥! 안 되지 안 돼.
그러나 삼바우는 차츰 술이 깨는 듯 오스스 떨리어 왔다.
- 하근찬, 「나룻배 이야기」 -

얼굴이 빨개진 두 사람을 보면서, '삼바우'는 통쾌함을 느끼고 자신의 용기에 놀라움도 느낍니다. 앞서 보였던 '삼바우'의 울적한 심리를 바탕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용기를 내고 통쾌함을 느끼는 것에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삼바우'는 차츰 술이 깨는 듯 오스스 떨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쨌든 공무 집행 방해를 한 것이기도 하고, 자신의 용기에 놀랐다는 서술을 보면 애초에 그렇게 대범한 성격도 아니기에 슬슬 두려움이 엄습한다는 것에 쉽게 공감할 수 있겠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83%	2%	5%	7%	3%

18.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① 동식이가 마을을 떠나고 사흘 후 그에게 영장이 나왔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영장이 나오니까 마을을 떠난 거지.
해설	영장이 나왔으니 소리를 지르며 마을을 떠난 것이지, 일단 마을을 떠난 상태에서 갑자기 영장이 나온 게 아니죠? '동식이'와 '수만이'가 소리를 지르면 마을을 떠나가는 모습을 상상하고, 그 감정에 공감했다면 어렵지 않게 답으로 고를 수 있는 선지였습니다.

② 마을을 떠난 용팔이에게서는 한 번도 소식이 오지 않았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삼바우가 기다릴 만했지.
해설	‘용팔이’는 맥락상 ‘삼바우’의 아들로 추정됩니다. ‘삼바우’는 ‘순경’과 ‘양복쟁이’를 보면서 혹시 ‘용팔이’가 온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는 모습을 보여어요. 이는 아들인 ‘용팔이’가 떠난 뒤 한 번도 소식이 오지 않았기에 간절하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③ 모량댁은 두칠이를 만나지 못한 채 슬퍼하며 세상을 떠났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목메어 불렀지.
해설	목메어 ‘두칠이’의 이름을 부르다가 죽어 가는 ‘모량댁’을 상상하면서 공감했던 내용입니다. 당연하게 지워낼 수 있겠죠?

④ 마을에 온 양복쟁이는 집을 물어 가며 젊은이들을 찾아다녔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전쟁터로 데려가려고 한 거지.
해설	‘삼바우’의 배를 타고 마을에 온 ‘양복쟁이’는 골목을 뒤지면서 젊은이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전쟁터에 데려갈 인원을 선별하는 과정이었죠?

⑤ 갑분이는 두칠이 동생들의 불행한 처지에 매우 가슴 아파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랬지.
해설	‘갑분이’는 ‘두칠이’가 없는 사이에 ‘모량댁’이 죽은 것에 대해 어린 동생들이 불쌍하게 되었다며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량댁’과는 심리의 깊이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며 확실하게 공감했던 부분이지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1%	82%	8%	4%	5%

19. ㉠, ㉡의 서사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지난불 / ㉡ **갈 길****

- ㉠는 ‘순경’과 ‘양복쟁이’가 처음으로 마을의 젊은이들을 데려갔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는 ‘삼바우’가 저 두 사람을 태우지 않기 위해 끊어 버린 길을 의미하죠? 이와 관련된 서사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찾아봅시다.

① ㉠는 중심인물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시간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오히려 내적 갈등이 생기면 생겼지.
해설	㉠ 때, ‘삼바우’는 자신의 아들인 ‘용팔이’를 비롯한 마을의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끌려가는 걸 목격합니다. 이는 ‘삼바우’의 입장에서 내적 갈등이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근거가 있는데 내적 갈등이 해소된다는 건 절대 허용할 수 없습니다.

② ㉡는 마을의 위기가 외부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함박늪이 마을을 덮었던 그 겨울과 유사하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러네.
해설	㉡와 ‘함박늪이 마을을 덮었던’ 겨울 모두, ‘순경’과 ‘양복쟁이’라는 외부의 사람들이 마을의 젊은이들을 잡아가는 위기를 만들어낸 시간입니다. 이런 점에서 두 시간대가 유사하다는 것, 어렵지 않게 허용할 수 있겠네요.

③ ㉢는 적대적 인물에 대한 중심인물의 반감이 해소되는 공간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더 심화되는 곳이지.
해설	㉢는 ‘적대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에 대한 ‘삼바우’의 반감이 극대화되는 곳입니다. 이 반감 때문에 ㉢를 끊어 버리는 돌발 행동을 한 것이었죠? 결국 계속 내면세계만 묻고 있습니다.

④ ㉣는 마을의 위기가 외부인의 노력으로 해결된다는 점에서, 중심인물의 능동성이 부각되는 나룻배와 차이가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외부인이 뭘 노력을 해.
해설	㉣든 어디서든 이 작품속 외부인인 ‘두 사람’은 마을의 위기를 가져다주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외부인의 노력으로 위기가 해결된다는 것 자체가 절대 허용할 수 없는 말이죠.

⑤ ㉤의 시기에, ㉢는 적대적 인물에 의해 끊어져 인물 간 갈등이 심화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를 끊은 건 삼바우인데?
해설	일단 ㉢를 끊은 것은 적대적 인물이 아니라 ‘삼바

우'이고, 이것이 끊긴 시기는 @로부터 한참 후입니
다. 총체적으로 들린 선지네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82%	9%	3%	4%	2%

20. [A]에 나타난 인물의 반응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A]는 '두 사람'이 또 나타난 것에 분노하다가, 이들이 가까워지자 두려움을 느끼고, 그러다 결국 '강 길'을 끊어 버리겠다는 결심을 하는 등 '삼바우'의 내면세계 변화가 잘 드러나는 부분이었습니다. 완벽하게 공감하고 있으니 쉽게 답을 골라봅시다.

- ① '주먹을 불끈 쥐'는 것은 '안 돼!'에서 나타난 고조된 감정에 따른 신체적 반응을 보여 주는군.

"안되지, 안 돼!"
주먹을 불끈 쥐고, 한쪽 발로 땅을 팡! 내리구른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분노한 거지.
해설	'안 돼!'에서 나타난 고조된 감정, 즉 '분노'가 주먹을 불끈 쥐는 신체적 반응으로 나타난 것이죠? 허무할 정도로 간단하게 답이 나오는 모습이네요.

- ② '뿌드득 물었던 어금니'가 떨리는 것은 상대가 '또렷하게' 보인 것의 심리적 원인을 보여 주는군.

그러나 어찌 된 영문인지 총을 맨 사람과 양복쟁이의 얼굴이 또렷하게 바라보일 만큼 가까워지자, 그만 아랫도리가 후들후들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뿌드득 물었던 어금니도 덜덜 떨리고,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또렷하게 보이니까 어금니가 떨린 거지.
해설	분노에 차 있던 '삼바우'는 '두 사람'이 또렷하게 보이자 두려움을 느끼고 어금니가 떨리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처럼 선지에서 말하는 것과는 달리 상대가 '또렷하게' 보인 것이 어금니가 떨린 것의 원인이기에 틀린 선지네요.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 ③ '손가락들이 제가끔' 힘없이 풀려 나간 것은 '하는 수 없다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신체적 반응을 보여 주는군.

주먹에서도 손가락들이 제가끔 힘없이 풀려 나간다. 하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하는 수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손가락이 풀린 거지.
해설	손가락들이 풀려 나간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이는 '하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자포자기하는 심정에서 나타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보자마자 헛소리라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 ④ '뒤통수를 갈기'는 듯한 생각이 드는 것은 '두 눈에 뜨거운 것이 핑' 돈 것의 심리적 원인을 보여 주는군.

두 눈에 뜨거운 것이 핑 돈다. 그러나 그 순간, 참 희한한 생각이 하나 뒤통수를 갈기고 지나갔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눈물이 났다가 갑자기 아이디어를 얻은 건데?
해설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다가, 갑자기 '희한 생각'이 하나 뒤통수를 갈기는 느낌을 받은 '삼바우'입니다. 뒤통수를 갈기는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난 게 아니죠?

- ⑤ '궁둥이를 탁 치'는 것은 '희한한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신체적 반응을 보여 주는군.

두 눈에 뜨거운 것이 핑 돈다. 그러나 그 순간, 참 희한한 생각이 하나 뒤통수를 갈기고 지나갔다.
"옹지!"
삼바우는 궁둥이를 탁 치고, 고의춤을 불끈 추켜올렸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완전 유레카의 순간인데?
해설	'희한한 생각'을 떠올리고 이를 실현할 생각을 하며 '궁둥이를 탁 치'는 '삼바우'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유레카!' 하는 순간과 유사한 상황이기에, '희한한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는 말은 절대 허용할 수 없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2%	4%	84%	4%	6%

21.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③

① ㉠: 상대를 바라보는 인물 묘사와 함께 ‘우리 용팔이’라고 하며 ‘용팔이’를 먼저 떠올리는 인물 내면의 목소리를 진술하여, 떠올린 대상에 대한 인물의 유대감을 독자도 느낄 수 있겠군.

㉠ 삼바우는 이마에 손을 얹고 그쪽을 바라보며 으으! 크게 트림을 했다. 혹시 우리 용팔이 아니가? 용팔이가 오면 혼자 올 텐데…… 보자, 동식이랑 같이 오는 거 아니가?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유대감이 있으니까 먼저 떠올린 거지.
해설	상대를 바라보는 ‘삼바우’의 인물 묘사가 나타나고, 이와 함께 ‘우리 용팔이’라고 하며 ‘용팔이’를 먼저 떠올리는 ‘삼바우’ 내면의 목소리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떠올린다는 것을 근거로 하면, ‘삼바우’가 ‘용팔이’에 대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당연하게 허용할 수 있겠지요?

② ㉡: 인물 내면의 목소리와 함께 상대를 바라보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 주며 상대의 이동을 ‘가까워지는데’로 표현하여, 인물의 공간 감각을 독자도 느낄 수 있겠군.

㉡ 동식이하고 수만이 가들 둘인가? 삼바우는 두 눈을 곧장 꺾겨본다. 그러나 점점 가까워지는데 보니, 그것은 용팔이도 아니고, 동식이기도 수만이기도 아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러네.
해설	‘삼바우’ 내면의 목소리와 함께 상대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여 주며 상대의 이동을 ‘가까워지는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꼭 따라 읽으면 그들이 다가오는 ‘공간 감각’이 충분히 느껴지죠?

③ ㉢: 인물 내면의 목소리와 함께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인물의 모습을 통해, 상대에 대한 인물의 호기심과 반감을 모두 보여 주어 인물이 처한 복합적 상황을 독자가 이해할 수 있겠군.

㉢ 또 오는구나. 또 누굴 데려갈라고……. 술기와 함께 온몸의 피가 얼굴로 치솟는 듯했다. 입술도 부들부들 떨렸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뭔 호기심?
해설	‘삼바우’ 내면의 목소리와 함께 ‘부들부들’ 떨고 있

	는 모습을 보면, 상대에 대한 ‘삼바우’의 반감과 분노가 적나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기심’이요? ‘삼바우’ 입장에서 저들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 ‘호기심’이라는 내면세계에 공감하기는 매우 어렵네요. 결국 또 내면세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였습니다. 가볍게 답으로 고를 수 있겠지요? 혹시나 ‘또 누굴 데려갈라고…….’를 보고 ‘호기심’을 떠올렸으면 반성하셔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은 인물의 내면세계에 공감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냥 텍스트만 보고 눈앞 골리는 형태의 문제 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	--

④ ㉣: 인물 내면의 목소리와 함께 ‘콧방귀를 팡 끼’는 인물의 모습을 제시하여, 의기양양해 하는 인물의 심정을 독자도 느낄 수 있겠군.

㉣ 어디 탈 테면 한번 타 보지, 흥! 콧방귀를 팡 끼어 준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의기양양 그 자체지.
해설	‘삼바우’는 ‘강 길’을 끊어 버린 뒤 통쾌함과 함께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입니다. 확실하게 공감했던 내용이니 어렵지 않게 지워낼 수 있겠네요.

⑤ ㉤: 인물 내면의 목소리와 함께 ‘오스스’ 떠는 인물의 모습을 통해, 자기 행위에 대한 인물의 확신과 불안을 모두 보여 주어 인물이 처한 복합적 상황을 독자가 이해할 수 있겠군.

㉤ 흥! 안 되지 안 돼.
그러나 삼바우는 차츰 술이 깨는 듯 오스스 떨리어 왔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확신과 불안 그 자체네.
해설	‘흥! 안 되지 안 돼.’라는 인물 내면의 목소리에서는 ‘삼바우’의 자신의 행동에 대한 확신이, ‘오스스 떨리어’ 오는 모습에서는 불안이 모두 나타나죠? 지문을 읽으면서부터 이미 납득했던 내용이니 가볍게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① 허용 가능성 평가 : 선지의 내용을 '허용'하려는 태도를 바탕으로 지문을 '독해'하며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허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만 허용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을 개입시키면 안 됩니다.

② 소설 독해 : '심리와 행동의 근거'를 바탕으로 인물에게 '공감'하며 읽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물흐르듯 이어지면 지문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지문 내용 총정리

인물들의 내면세계가 선명하게 제시되고 있고, 그 근거를 잡는 것도 어렵지 않다는 점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정말 쉽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해요.

생각의 전개 <운문문학 해결하기>

2027.06 [22~27] 현대사+수필 '그 나무 / 나무 / 노인과 꽃'

☆☆

<보기> 확인

—<보 기>—

자연은 교감과 관찰의 대상으로서 화자가 자신의 생각을 펼쳐 나가는 데 기여한다. (가)에서 **자연은 화자에게 자신의 지지부진한 처지를 환기하는 연민의 대상이다.** 시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화자의 삶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스스로 묻고 찾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나)에서 **자연은 화자에게 관찰과 지각의 대상**이다. 시는 일상의 사물이 된 자연에 대한 표면적 관찰을 넘어, 대상에 깃든 힘들의 작용과 역동적인 시간을 드러냄으로써 자연에 대한 새로운 지각으로 나아간다.

'자연'과 관련된 작품들이 제시되는 것 같습니다. (가)에서 '자연'은 화자에게 자신의 지지부진한 처지를 환기하는 '연민'의 대상이라고 해요. 화자의 상황과 내면세계가 잘 드러나고 있죠?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글을 읽어야 합니다.

한편, (나)에서 '자연'은 화자에게 관찰과 지각의 대상입니다. 이를 통해 대상에 깃든 힘들의 작용과 역동적인 시간을 드러낸다고 하네요. 어떤 힘들이 나오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역동적인 시간'이라는 표현을 통해 그 힘이 역동성과 관련될 것이라는 생각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이 내용을 살려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실전적 지문 독해

(가)

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웠다 지운
 벚꽃 가로 따라가다가
 미처 제 꽃 한 송이도 펼치지 못하고 멈칫거리는
늦된 그 나무 발견했지요.
 들킨 게 부끄러운지, 그 나무
 시멘트 개울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 감춰놓고
 앞줄 아름답디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더서
 꽃철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
 그래도 여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명울 어딘가 안쓰러웠지요.
 늦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꽃불 성화,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 멈춰 서 있었지요.
 산에서 내려 두 달거리나 제자릴 찾지 못해
 해매고 다녔던 저 난만한 봄길 어디,
 늦감이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지요.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릇한 잎새 매달까요?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
 불타는 소신평양 틈새 가난한 소지*,
 저 나무도 가지가지마다 지퍼 올릴 수 있을까요?

- 김명인, 「그 나무」 -

* 소지: 부정을 없애고 소원을 빌기 위해 태워 올리는 종이.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봄'에 봤던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는 다른 나무들과는 달리 꽃 한 송이도 펼치지 못하고 있었는데, 화자는 이러한 모습을 안쓰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자는 언젠가 그 나무도 '푸릇한 잎새'를 매달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안쓰러운 '그 나무'를 응원하고 있다는 주제, 나아가 <보기>에서 말한 것처럼 화자 자신도 그 나무처럼 지지부진한 처지에 빠져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체크합니다.

(나)

대패로 깎아낸 자리마다 무늬가 보인다
 희고 밝은 목질 사이를 지나가는
 어둡고 딱딱한 나이테들
 이 단단한 흔적들은 필시
 겨울이 지나갔던 자리이리라
 꽃과 잎으로 자유로이 드나들며 숨쉬던
 모든 틈과 통로가
 일제히 딱딱하게 오므리고
한겨울 추위를 막아내던 자리이리라
 두꺼운 껍질도 끝내 견디지 못하고
 거칠게 갈라졌던 자리이리라
 뿌리가 빨아들인 맑은 차양들은
 물관 속에서 호흡과 움직임을 멈추고
 나무 밖의 거대한 힘에 귀기울였으리라
 추위의 난폭한 힘은 기어코 껍질을 뚫고 들어가
 수액 깊이 맴개 스며들었으리라
 수액을 찾아 들어왔던 햇빛과 공기들은
 그 자리에서 겨우내 얼었다가
 독한 향기와 푸르고 진한 빛으로 익어갔으리라
해마다 얼마나 많은 잎과 꽃들이
이 무늬를 거쳐 봄에 이르렀을까
 문뜬인지도 직각의 모서리인지도 모르고
지느러미처럼 빠르고 날렵한 무늬들은
가구들 위를 흘러다니고 있다

- 김기택, 「나무」 -

대패로 깎아낸 자리마다 나이테들의 무늬가 보이는 '나무'를 관찰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입니다. 나아가, 그 나이테들이 '한겨울 추위'와 같은 시련을 이겨냈던 자리라는 인식을 보이고 있어요. 이 나무는 현재 '가구'가 되어 있네요. <보기>에서 말한 것처럼, 화자는 가구를 보면서 그 가구가 되기까지 겪었던 시련들을 이겨낸 '나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관찰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노인이 꽃나무를 심으심은 무슨 보람을 위하심이오니까. 등이 굽으시고 숨이 차신데도 그래도 꽃을 가꾸시는 양을 봐오니, 손수 공들이신 가지에 붉고 빛나는 꽃이 맺으리라고 생각하오니,
희고 희신 나뭇이나 주름살이 도리어 꽃답도소이다.
 나이 이순을 넘어 오히려 여색을 기르는 이도 있거니 실로 누추하기 그지없는 일이옵니다. 빛깔에 취할 수 있음은 빛이 어느 빛일는지 청춘에 맡길 것일는지도 모르겠으나 쇠년(衰年)에 오로지 꽃을 사랑하심을 봐오니 거룩하시게도 정정하시옵니다.

꽃나무를 심는 '노인'을 바라보는 글쓴이입니다. 신체적 한계를 가진 상태에서도 꽃을 가꾸는 모습을 '꽃답'다고 하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

죠? 나이를 먹고 여색에 빠지는 등 누추한 이들도 있지만, 오로지 꽃만 사랑하는 모습은 '거룩하게도 정정하게 느껴질 정도라는 거예요. '꽃을 가꾸는 노인의 아름다움'이라는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으니 확실하게 인식해야겠죠?

봄비를 맞으시며 심으신 것이 언제 바람과 햇빛이 더워 오면 고운 꽃봉오리가 촛불 켜듯 할 것을 보실 것인데 그만큼 노래'의 한 계절이 헛되이 지나지 않은 것이입니다.

노인의 고담한* 그늘에 어린 자손이 회희(戲戲)하며 꽃이 피고 나무와 벌이 날며 닝거린다는 것은 여년(餘年)과 해골을 장식하기에 이렇듯 화려한 일이 없을 듯하옵니다.

* 노래: '늘그막'을 점잖게 이르는 말.
* 고담한: 예스럽고 맑은 느낌이 있는.

계속해서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글쓴이는 노인이 열심히 키운 꽃이 결국 국유의미할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꽃을 키우는 과정은 곧 '노래의 한 계절이 헛되이 지나지 않은 것'이면서, 그 결과는 '화려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주제를 인식했으니 결국 다 같은 말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빠르게 읽어내시면 됩니다.

해마다 꽃은 한 꽃이로되 사람은 해마다 다르도다. 만일 노인 백 세 후에 기거하시던 창호가 닫히고 뜰 앞에 손수 심으신 꽃이 난만할 때 우리는 거기서 슬퍼하겠나이다. 그 꽃을 어찌 즐길 수가 있으리까. 꽃과 주검을 실로 슬퍼할 자는 청춘이요 노년의 것이 아닐까 합니다. 분방히 끊는 정염이 식고 호화롭고도 핫 핫한 부끄럼과 건질 수 없는 괴롭으로 수놓은 청춘의 웃옷을 벗은 뒤에 오는 청수하고 고고하고 유한(幽閑)하고 완강하기 학과 같은 노년의 덕으로서 어찌 주검과 꽃을 슬퍼하겠습니까. 그러기에 꽃이 아름다움을 실로 볼 수 있기는 노경*에서일까 합니다.

- 정지용, 「노인과 꽃」 -

* 노경: 늙음의 때 또는 노년의 경지.

글쓴이는 노인이 백 세가 지난 후 살던 곳의 창호가 닫히고 손수 심은 꽃이 난만할 때(맥락상 노인의 죽음 뒤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곳에서 슬퍼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꽃과 주검'을 슬퍼할 자는 글쓴이와 같은 청춘이지, 노인과 같은 노년이라고 해요. 노년은 청춘의 웃옷을 벗은 뒤에 오는 '고고하고 유한하고 완강하기 학과 같은 덕'을 가지게 되기에, '주검과 꽃'을 슬퍼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네요. 이에 청춘과는 다르게 꽃이 아름답다는 것을 실로 볼 수 있는 것은 '노경'에서라고 합니다. 글쓴이와 같은 청춘들은 아직 '노경'에 이르지 못했으니 '꽃과 주검'을 보고서 슬퍼하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글쓴이의 주장, 즉 주제를 정확하게 인식한 상태로 문제를 풀어야 해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43%	5%	45%	5%	2%

2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① 상황의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주제 의식! 상황의 대비 있네.
해설	일단 '주제 의식'이라는 거시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니 답의 후보로 삼고 접근해야 합니다. '상황의 대비'만 찾아보면 되겠죠? (가)의 경우 꽃을 피운 나무와 그렇지 못한 '그 나무'의 상황이 대비되고 있고, (나)에서는 나무에게 시련이 닥친 상황과 그것을 견뎌낸 현재의 상황이 대비되고 있죠. 나아가 (다)에서는 청춘의 상황과 노년의 상황을 대비하며 '꽃과 주검'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서술했었습니다. 이처럼 모두 주제와 직결되는 '상황의 대비'가 나타나고 있으니, 가볍게 답으로 골라낼 수 있겠죠. 거시적인 선지는 먼저 판단하는 태도와 주제 중심으로 선지를 판단하는 원칙을 살렸다면 충분히 맞힐 수 있었을 거예요.

② 공간의 이동에 따라 대상의 변화를 그려 내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아 귀찮아.
해설	'공간의 이동'이라는 귀찮은 요소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다) 그 어디에도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지도 않구요. 귀찮은 건 나중에 판단하라는 원칙에 따라 지워내면 되겠죠? 이미 답도 골랐으니깐요.

③ 계절의 흐름을 통해 애상적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애상적 분위기는 무슨.
해설	일단 (가)와 (다)에서는 '계절의 흐름'이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두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 속에서 '가을' 및 '여름'이라는 미래의 계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 뿐, 계절의 '흐름' 자체를 서술하고 있지는 않죠. 한편 (나)의 경우에는 '겨울→봄'이라는 계절의 흐름이 명확하게 살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2번 선지의 '공간의 이동'처럼 찾기 귀찮은 부분에 해당합니다. 시험장에서 저렇게 하나 하나 따지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애상적 분위기'라는, 주제 그 자체와 직결되는 '내면세계'를 중심으로 선지를 판단했어야 해요. 그런데 이 작품의 주제들을 고려할 때, '슬픔'이라

는 의미를 가진 '애상적 분위기'를 허용하기는 어렵죠? (가)는 '그 나무에 대한 연민', (나)는 '가구가 된 나무에 대한 지각', (다)는 '꽃을 심는 노인에 대한 예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주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중심으로 선지를 판단했다면 어렵지 않게 지워낼 수 있었을 겁니다.

생각 심화

평가원은 최근 문학의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 중 하나로 이와 같은 '비슷한 내면세계들의 구분'을 요구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가)에서 '그 나무에 대한 연민'을 보인다는 점, (나)에서 시련을 겪은 나무에 대한 '안타까움'을 보인다는 점, (다)에서 '꽃과 주검'에 대한 '슬픔'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하면, '연민·안타까움·슬픔'이라는 말을 '애상적'이라는 말과 유사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두 기본적으로 부정적 감정기에 비슷하게 느껴지고, 구분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민·안타까움'과 '슬픔'은 분명하게 다른 내면세계입니다. 이처럼 평가원은 비슷한 내면세계들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바탕으로 문학에서의 변별력을 확보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나아가 '애상감'은 일반적으로 '상실감'에서 비롯된 슬픔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의 '슬픔'도 '애상감'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이러한 내용들을 미리 외우고 있을 수는 없겠지만, 무수히 많은 내면세계에 공감해보는 과정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감'을 얻을 수 있어요. 이 '감'이 갖춰진 학생들은 시험장에서 '애상적 분위기'를 보자마자 헛소리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비슷한 내면세계를 정확히 구분하는 '감', 그리고 특정 내면세계가 나타나는 상황에 대한 '감'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최대한 많은 상황에 공감해보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평가원은 문학에서 그 경험치 자체를 묻고 있어요!

④ 말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말을 주고받은 적은 없지.
해설	'말을 주고받는 방식'은 너무나 미시적인 내용이라 찾기도 귀찮을 뿐 아니라, (가)~(다)를 읽으면서 한 번도 인식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가볍게 지워낼 수 있겠죠.

⑤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무슨 비판.
해설	(가)에서는 나무가 꽃을 피우는 가상의 상황, (다)에서는 노인이 죽은 후의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서는 딱히 가상의 상황을 설정한 적이 없죠? 물론 실전에서는 이런 미시적인 포인트가 아니라,

'현실에 대한 비판'이 세 작품 모두의 주제와 크게 어긋난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워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확실한 풀이 기준을 세워야 어려워졌을 때 대처할 수 있어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1%	3%	85%	7%	4%

23.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③

① '자리이리라'에는 시련을 견뎌 내려 했던 '나무'의 시간과 경험이 '갈라진 자국'으로 남아 있다는 인식이 담겨 있군.

꽃과 잎으로 자유로이 드나들며 숨쉬던
모든 틈과 통로가
일제히 딱딱하게 오므리고
한겨울 추위를 막아내던 자리이리라
두꺼운 껍질도 끝내 견디지 못하고
거칠게 갈라졌던 자리이리라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자리이리라'는 한겨울 추위라는 시련을 견뎌 내려 했지만 결국 견디지 못한 '나무'의 자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독해의 결과 그대로 선지화되어 있네요.

② '스며들었으리라'에는 '나무'의 내부로 들어온 모진 기운이 '수액'에 깊이 배어들었다는 인식이 담겨 있군.

추위의 난폭한 힘은 기어코 껍질을 뚫고 들어가
수액 깊이 맵게 스며들었으리라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추위의 난폭한 힘이 스며들었다네.
해설	'추위의 난폭한 힘'이라는 모진 기운이 나무의 내부로 들어와 '수액'에 깊이 스며들었다는 내용이죠? 그대로 선지화되어 있습니다.

③ '익어갔으리라'에는 바깥의 힘이 때운 '추위'를 지나 '독한 향기'라는 부정적 결과를 맺었다는 인식이 담겨 있군.

추위의 난폭한 힘은 기어코 껍질을 뚫고 들어가
수액 깊이 맵게 스며들었으리라
수액을 찾아 들어왔던 햇빛과 공기들은
그 자리에서 겨우내 얼었다가
독한 향기와 푸르고 진한 빛으로 익어갔으리라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독한 향기가 왜 부정적이어야?
해설	독해를 해 보면, '독한 향기'는 추위와 같은 시련을 이겨 내고 익어간 '나무'의 현재 모습입니다. 이 현재 모습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이 작품의 주제인데, 이를 '부정적 결과'로 표현하는 것은 주제를 정반대로 이해한 결과네요. 가볍게 답으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④ '이르렀을까'에는 시련이 수많은 '잎과 꽃'이라는 성취에 선행되었다는 인식이 담겨 있군.

해마다 얼마나 많은 잎과 꽃들이
이 무늬를 거쳐 봄에 이르렀을까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무늬는 시련을 거친 결과지.
해설	해마다 피는 잎과 꽃들이 거쳐 간 '이 무늬'는 추위와 같은 시련을 겪어낸 흔적입니다. 잎과 꽃들이 비로소 이 흔적에 이르렀다는 것은, 그 성취를 이루기 전에 시련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겠죠.

⑤ '홀러다니고 있다'에는 '나무'의 '무늬'에서 물 속 생명체의 움직임 같은 운동성이 느껴진다는 인식이 담겨 있군.

문틈인지도 직각의 모서리인지도 모르고
지느러미처럼 빠르고 날렵한 무늬들은
가구들 위를 홀러다니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지느러미같다네.
해설	'홀러다니고 있다'는 나무의 무늬들이 '지느러미' 같다는 인식에 비롯된 표현입니다. 이 인식은 곧 선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물 속 생명체의 움직임 같은 운동성'으로 바뀌어서 이해할 수 있겠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3%	9%	5%	14%	69%

2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⑤

① (가)에서 '나'가 '그 나무'를 보고 자신의 방향을 떠올린다는 점에서, '그 나무'는 화자의 처지를 환기하는 대상이군.

미처 제 꽃 한 송이도 펼쳐 들지 못하고 멈칫거리는
늦된 그 나무 발견했지요.

(중략)

산에서 내려 두 달거리나 제자릴 찾지 못해
헤매고 다녔던 저 난만한 봄길 어디,
늦깎이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지요.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주제네.
해설	(가)의 화자는 '그 나무'를 보고서 '두 달거리나 제자릴 찾지 못했던 자신의 방향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보기>에서 말한 것처럼 '그 나무'라는 자연이 화자의 지지부진한 처지를 환기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제 그 자체에 해당하는 선지이니 가볍게 지워낼 수 있어야 합니다.

② (나)에서 '목질'과 '나이테'로 이루어진 무늬는 '대패로 깎아' 만든 가구의 문양이라는 점에서, 화자가 일상의 사물이 된 자연을 보고 그 표면을 관찰한 결과이군.

대패로 깎아낸 자리마다 무늬가 보인다
회고 밝은 목질 사이를 지나가는
어둡고 딱딱한 나이테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주제네.
해설	(나)의 화자는 '대패로 깎아낸' 일상의 사물인 가구를 보면서 '목질'과 '나이테'로 이루어진 무늬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 그 자체를 읊어주는 선지네요.

③ (가)의 화자는 '늦된 나무'의 '멍울'을 보고 연민의 정서를, (나)의 화자는 '나이테'의 '흔적'을 보고 나무에서 작용한 힘들에 대한 지각을 드러낸 것이군.

그래도 어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멍울 어딘가 안쓰러웠지요.
늦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꽃불 성화,

어둡고 딱딱한 나이테들

이 단단한 흔적들은 필시
겨울이 지나갔던 자리이리라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주제네.
해설	(가)의 화자는 '늦된 나무'의 '멍울'이 안쓰럽다며 연민의 정서를 보였고, (나)의 화자는 '나이테'의 '흔적'을 보고 나무에서 작용한 '겨울'이라는 힘들에 대한 지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역시 주제 그 자체이니 가볍게 지워낼 수 있겠죠?

- ④ (가)의 화자는 나무에 대한 자신의 기대와 바람을 '푸릇한 잎새'로, (나)의 화자는 겨울을 겪은 후 나무가 맞이한 긍정적 시간을 '푸르고 진한 빛'으로 형상화한 것이군.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릇한 잎새 매달까요?

수액을 찾아 들어왔던 햇빛과 공기들은
그 자리에서 겨우내 얼었다가
독한 향기와 푸르고 진한 빛으로 익어갔으리라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매달 것이라 기대하고 있고, 푸르고 진한 빛은 지금의 긍정적 모습이지.
해설	(가)의 화자는 나무가 이 봄이 가기 전 '푸릇한 잎새'를 매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바람을 드러내고 있고, (나)의 화자는 겨울을 겪은 후 나무가 현재 '푸르고 진한 빛'의 긍정적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제와도 직결되는 내용이고, 선지에서 묻는 부분에 대한 독해의 결과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선지이니 가볍게 지워낼 수 있겠네요.

- ⑤ (가)의 '가난한 소지'는 여름 이후의 '저 나무'를 향한, (나)의 '귀기울임은 '난폭한 힘'과 맞선 '거대한 힘'을 향한 화자의 기원이 담긴 점에서, 자연에 대한 화자의 전망을 표현한 것이군.

불타는 소신공양 틈새 가난한 소지*,
저 나무도 가지가지마다 지퍼 올릴 수 있을까요?
* 소지: 부정을 없애고 소원을 빌기 위해 태워 올리는 종이.

뿌리가 빨아들인 맑은 자양들은
물관 속에서 호흡과 움직임을 멈추고
나무 밖의 거대한 힘에 귀기울였으리라
추위의 난폭한 힘은 기어코 꺾질을 뚫고 들어가
수액 깊이 뱉게 스며들었으리라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난폭한 힘과 거대한 힘은 같은 건데?

해설	(가)의 '가난한 소지'는 여름 이후의 '저 나무'라는 자연을 향한 전망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가난한 소지'를 지퍼 올릴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나)의 '귀기울임'은 나무 밖의 '거대한 힘'이자 '난폭한 힘'에 '뿌리가 빨아들인 맑은 자양들'이 집중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일단 '난폭한 힘'에 '거대한 힘'이 맞선다는 것 자체가 독해를 잘못된 것이고, 이를 '화자의 기원'으로 해석한 것도 오독의 결과네요. 결국 '독해'를 기반으로 한 선지 판단을 하고 있는지 묻는 전형적인 문제였습니다.
----	--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1%	5%	5%	86%	3%

25. (다)의 글쓴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

- ① '등이 곱'고 '숨이 차'는 어려움 속에서도 노인이 공들여 꽃을 가꾸는 점에서, 그의 모습을 아름답게 여기고 있군.

등이 곱으시고 숨이 차신데도 그래도 꽃을 가꾸시는 양을 봐오니, 순수 공들이신 가지에 붉고 빛나는 꽃이 맺으리라고 생각하오니, 희고 희신 나뭇이나 주름살이 도리어 꽃담도소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주제네.
해설	'등이 곱'고 '숨이 차'는 어려움 속에서도 공들여 꽃을 가꾸는 노인을 아름답게 여기는 것. 이 작품의 주제 그 자체죠?

- ② 나이를 먹고도 '누추'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노인은 오로지 꽃을 사랑한다는 점에서, 그의 '정정'함을 거룩하게 여기고 있군.

나이 이순을 넘어 오히려 여색을 기르는 이도 있거니 실로 누추하기 그지없는 일이옵니다. 빛깔에 취할 수 있음은 빛이 어느 빛일는지 청춘에 맡길 것일는지도 모르겠으나 쇠년(衰年)에 오로지 꽃을 사랑하심을 봐오니 거룩하시게도 정정하시옵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주제네.
해설	나이를 먹고도 여색을 기르는 등 '누추'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노인은 그저 꽃을 사랑한다는 점에서 그의 '정정'함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 역시 이 작품의 주제 그 자체입니다.

③ 직접 심은 꽃나무에 맺힐 '꽃봉오리'를 노인이 보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의 '한 계절'을 보람 있게 여기고 있군.

봄비를 맞으며 심으신 것이 언제 바람과 햇빛이 더워 오면 고운 꽃봉오리가 촛불 켜듯 할 것을 보실 것인데 그만치 노래'의 한 계절이 헛되어 지나지 않은 것이옵니다.

* 노래 : '늘그막'을 점잖게 이르는 말.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한 계절이 헛되지 않다고 했네.
해설	직접 심은 '꽃봉오리'가 촛불 켜듯 할 것을 여름이 오면 볼 것이기에 '노래의 한 계절'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독해의 결과를 그대로 선지화했네요.

④ '꽃이 난만'하면 '우리'는 그 꽃을 보며 즐기겠지만 노인은 슬퍼할 것이라는 점에서, 노인이 끊는 '정염'에서 벗어난 경지에 이르렀다고 여기고 있군.

해마다 꽃은 한 꽃이로되 사람은 해마다 다르도다. 만일 노인 백 세 후에 기거하시던 창호가 닫히고 뜰 앞에 손수 심으신 꽃이 난만할 때 우리는 거기서 슬퍼하겠나이다. 그 꽃을 어찌 즐길 수가 있으리까. 꽃과 주검을 실로 슬퍼할 자는 청춘이요 노년의 것이 아닐까 합니다. 분방히 끊는 정염이 식고 호화롭고도 핫 핫한 부끄럼과 건질 수 없는 괴롭음으로 수놓은 청춘의 웃옷을 벗은 뒤에 오는 청수하고 고고하고 유한(幽閑)하고 완강하기 학과 같은 노년의 덕으로서 어찌 주검과 꽃을 슬퍼하겠습니까. 그러기에 꽃이 아름다움을 실로 볼 수 있기는 노경*에서일까 합니다.

* 노경 : 늙음의 때 또는 노년의 경지.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반대로 써 냈네.
해설	해당 부분을 독해하면서, 글쓴이와 같은 청춘들인 '우리는' '꽃과 주검'을 슬퍼하겠지만 끊는 '정염'에서 벗어나 '노경'에 이른 노인은 그 아름다움을 실로 볼 것이라는 인식이 드러났음을 확인했었습니다. 이러한 독해의 결과를 정반대로 이해한 내용이니, 어렵지 않게 답으로 골라낼 수 있겠네요.

⑤ '노년'이 '고고'한 '학과' 같은 덕을 지닌 시기라는 점에서, 노인이 꽃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고 여기고 있군.

분방히 끊는 정염이 식고 호화롭고도 핫 핫한 부끄럼과 건질 수 없는 괴롭음으로 수놓은 청춘의 웃옷을 벗은 뒤에 오는 청수하고 고고하고 유한(幽閑)하고 완강하기 학과 같은 노년의 덕으로서 어찌 주검과 꽃을 슬퍼하겠습니까. 그러기에 꽃이 아름다움을 실로 볼 수 있기는 노경*에서일까 합니다.

* 노경 : 늙음의 때 또는 노년의 경지.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랬지.
해설	4번 선지의 해설과 같은 맥락에서 허용할 수 있겠죠? 글쓴이는 '노경'에 이른 노인이 꽃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6%	77%	7%	5%	5%

26.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여느 꽃나무'들이 성취로 빛나는 동안 '그 나무'는 멈춰서 거리고 있던 지체의 시간이다.

한 해의 꽃잎을 ㉠ 며칠 만에 활짝 피웠다 지운 벚꽃 가로 따라가다가 미처 제 꽃 한 송이도 펼쳐 들지 못하고 멈춰서 서는 늦된 그 나무 발견했지요.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러네.
해설	㉠은 '여느 꽃나무'들이 꽃을 피 빛나는 동안 '그 나무'는 멈춰서 거리고 있던 시간입니다. 선지 그 자체로 허용할 수 있겠네요.

② ㉡은 화자가 '그 나무'에 '꽃불 성화'가 떠오르기까지 앞으로 소요된다고 본 준비의 시간이다.

늦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꽃불 성화, 환하게 타올라기라도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 멈춰 서 있었지요. 산에서 내려 ㉡ 두 달거리나 제자릴 찾지 못해 해매고 다녔던 저 난만한 봄길 어디, 늦깎이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지요.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은 지금까지 방황했던 시간인데?
해설	'꽃불 성화'는 화자가 '그 나무'에 언젠간 타올라 것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 이러한 믿음이 생기기 전 방황하던 화자의 시간들을 의미하겠죠? 이러한 독해의 결과를 근거로 하면, 이를 '앞으로 소요된다고 본 준비의 시간'으로 해석하는 건 절대 허용할 수 없겠네요.

③ ㉠은 나무의 안으로 '찾아 들어'온 '햇빛과 공기들'의 움직임이 멈추었던 기다림의 시간이다.

수액을 찾아 들어왔던 햇빛과 공기들은
그 자리에서 ㉠ 겨우내 얼었다가
독한 향기와 푸르고 진한 빛으로 익어갔으리라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얼었으니 멈춘 거지.
해설	㉠은 '햇빛과 공기들'이 얼어있던, 즉 움직임이 멈추었던 시간입니다. 이는 '독한 향기와 푸르고 진한 빛'을 기다리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④ ㉠은 '딱딱하게 오므'렸던 '모든 틈과 통로'가 다시 '드나들며 숨쉬'는 생동의 시간이다.

꽃과 잎으로 자유로이 드나들며 숨쉬던
모든 틈과 통로가
일제히 딱딱하게 오므리고
한겨울 추위를 막아내던 자리이리라

(중략)

해마다 얼마나 많은 잎과 꽃들이
이 무너를 거쳐 ㉠ 봄에 이르렀을까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봄은 생동의 시간이지.
해설	원래 꽃과 잎으로 자유로이 '드나들며 숨쉬'던 '모든 틈과 통로'는 겨울을 맞아 일제히 '딱딱하게 오므'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 오면서 다시 생동의 시간을 맞이했죠? 이러한 작품의 흐름을 생각했다면 어렵지 않게 허용할 수 있는 선지네요.

⑤ ㉠은 '꽃'의 피고 지는 속성이 주기적으로 실현되는 반복의 시간이다.

㉠ 해마다 꽃은 한 꽃이로되 사람은 해마다 다르도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해마다 꽃은 피고 지지.
해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 자체죠? 가볍게 지워낼 수 있겠습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22%	61%	6%	5%	6%

27.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들킨 게 부끄러운지, 그 나무
시멘트 개울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 감춰놓고
앞줄 아름답리 ㉠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

노인의 고담한* ㉡ 그늘에 어린 자손이 희희(戲戲)하며 꽃이
피고 나무와 벌이 날며 낭낭거린다는 것은 여년(餘年)과 해골을
장식하기에 이렇듯 화려한 일이 없을 듯하옵니다.

* 고담한: 에스덜고 맑은 느낌이 있는.

- ㉠은 '그 나무'가 성취를 하지 못해 부끄러워 하며 숨어 있는 공간을 의미하고, ㉡은 노인이 꽃을 심는 행위를 통해 만든 공간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을 골라봅시다.

① ㉠은 '늦된 나무'가 몸을 감추려는, ㉡은 '노인'이 생의 마지막을 장식하려는 이유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생의 마지막을 왜 장식해.
해설	㉠은 '늦된 나무'가 몸을 감춘 장소일 뿐, 몸을 감추려는 '이유'로 볼 수는 없어요. 나아가 ㉡은 '노인'이 노년에 가꾼 공간을 상징할 뿐이지, 생의 마지막을 장식하려는 이유로 보는 건 말이 되질 않죠? 자신이 죽을 자리를 꾸미기 위해 꽃을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선지에서 묻는 것을 정확하게 따지고 이를 바탕으로 지문을 독해했다면 답으로 고를 이유가 전혀 없는 선지입니다.

② ㉠은 '늦된 나무' 주변의 나무들에 의해 만들어진, ㉡은 '노인'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러네.
해설	㉠은 앞줄 '아름드리', 즉 '늦된 나무' 주변의 다른 나무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약 '아름드리'가 무슨 뜻인지 몰랐다고 해도, (가)에서 계속해서 다른 나무와 비교하는 내용이 나왔다는 점을 근거로 하면 ㉠이 주변 나무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충분히 허용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한편, ㉡은 '노인'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 그 자체죠? 미리 생각한 내용이기도 하니, 가볍게 답으로 고를 수 있어야 합니다.

③ ㉓는 '늦된 나무'가 봄을 더디게 맞이하려 하는, ㉔는 '노인'이 매년 달라지려 하는 목적이야.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들이 왜 목적이야.
해설	'늦된 나무'가 봄을 더디게 맞이하려는 목적, 나아가 '노인'이 매년 달라지려 하는 목적이 '그들'이라구요? 완전 헛소리네요. 심지어 '노인'이 매년 달라지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④ ㉓는 '늦된 나무'의 꽃철을 앞당기기 위해 필요한, ㉔는 '노인'의 남은 삶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전제야.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들이 왜 전제야.
해설	㉓가 있다고 해서 '늦된 나무'의 꽃철을 앞당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㉔가 있다고 해서 '노인'의 남은 삶이 헛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꽃을 심는 것은 '노인'의 남은 삶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전제가 될 수 있겠지만, 반드시 '그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⑤ ㉓는 '늦된 나무'가 부끄러움을 자각하기 위한, ㉔는 '노인'이 자신의 남은 삶을 희생하기 위한 조건이야.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들은 그렇게 거창한 역할을 못한다니까.
해설	'그들이' 부끄러움 자각, 남은 삶 희생을 위한 조건이라구요? '그들'들이 이렇게 대단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허용할 근거를 도저히 찾을 수 없습니다.

현대시 독해 연습

(가)

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웠다 지운
 벚꽃 가로 따라가다가
 미처 제 꽃 한 송이도 펼쳐 들지 못하고 멈춰서리는
 늦된 그 나무 발견했지요.

'벚꽃 가로'를 걷고 있는 화자입니다. 상상만 해도 아름다운 광경인데, 화자는 꽃 한 송이 피지 못한 '늦된 그 나무'를 발견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대상에 꽂혀 그에 대한 시상을 전개하는 것은 현대시의 전형적인 창작 방식 중 하나입니다. 익숙해지도록 합니다.

들킨 게 부끄러운지, 그 나무
 시멘트 개울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 감춰놓고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앞줄 아름다리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더서
 꽃철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
 그래도 어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멍을 어딘가 안쓰러웠지요.

'그 나무'는 들킨 게 부끄러운지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나무가 정말로 부끄러워하지는 않을 것이고, 꽃을 피우지 못해 구석에 박혀 있는 모습을 보고 화자가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상상한 것이겠죠. 그만큼 보잘 것 없어 보이는 나무였던 겁니다.

화자는 이렇게 봄이 외면한 것만 같은 나무를 보고서 '안쓰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심지어 꽃을 피워보겠다고 멍을 가득 매달고 있는 모습은 이러한 '안쓰러움'을 더욱 심화시키네요.

늦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꽃벌 성화,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 멈춰 서 있었지요.

그런데 화자는 이 '늦된 나무'가 비로소 '꽃벌 성화'를 밝혀들 것이라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비롯한 여러 정서들이 겹쳤는지, 화자는 그 나무 앞에 한참이나 멈춰 서 있는 모습이네요.

산에서 내려 두 달거리나 제자릴 찾지 못해
 해매고 다녔던 저 난만한 봄길 어디,
 늦깎이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지요.

이렇게 자연물에 주목하는 작품이라고 해도, 결국은 인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자는 산에서 내려 와 두 달 동안 해매고 있었는데,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리며 '늦깎이 깨달음'을 함께 얻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늦깎이 깨달음'이란 '지금도 보잘 것 없어도 언젠간 밝게 빛날 것'이라는 내용이겠죠? 화자는 '그 나무'라는 대상으로부터 이러한 '늦깎이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릇한 잎새 매달까요?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
 불타는 소신공양 틈새 가난한 소지(燒紙)*,
 저 나무도 가지가지마다 지퍼 올릴 수 있을까요?
 - 김명인, 「그 나무」 -
 * 소지: 부정을 없애고 소원을 빌기 위해 태워 올리는 종이.

이 봄이 가기 전 저 나무가 푸릇한 잎새를 매달 수 있을지, 여름도 지치고 말아 가을이 되면 '불타는 소신공양 틈새 가난한 소지'를 지퍼 올릴 수 있을지 묻고 있습니다. 이때 가을이라는 점에서 '불타는 소신공양 틈새 가난한 소지'는 단풍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나아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이 'yes'라는 것도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늦깎이 깨달음'이 바로 이 물음에 대한 답이고, 그것이 화자가 말하고 싶었던 주제에 해당하는 것이니까요.

(나)

대패로 깎아낸 자리마다 무늬가 보인다
회고 밝은 목질 사이를 지나가는
어둡고 딱딱한 나이트들
이 단단한 흔적들은 필시
겨울이 지나갔던 자리이리라

‘대패로 깎아낸 자리마다’ 보이는 무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무늬는 ‘나이트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화자는 그 흔적을 ‘겨울’이 지나간 자리로 인식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겨울’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간으로 서술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도 그럴 것인지 궁금해하면서 읽어봅시다.

꽃과 잎으로 자유로이 드나들며 숨쉬던
모든 틈과 통로가
일제히 딱딱하게 오므리고
한겨울 추위를 막아내던 자리이리라
두꺼운 껍질도 끝내 견디지 못하고
거칠게 갈라졌던 자리이리라

‘나이트들’에 대한 화자 자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곳은 일제히 딱딱하게 오므리고 ‘겨울’이라는 혹독한 시간을 막아내던 자리였을 것이라고 해요. 그러면서도 ‘두꺼운 껍질’마저 끝내 견디지 못하고 거칠게 갈라졌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역시나 ‘겨울’은 고난과 시련의 상징으로 쓰이는 모습이에요.

뿌리가 빨아들인 맑은 자양들은
물관 속에서 호흡과 움직임을 멈추고
나무 밖의 거대한 힘에 귀기울였으리라
추위의 난폭한 힘은 기어코 껍질을 뚫고 들어가
수액 깊이 뱉게 스며들었으리라

계속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뿌리 속 ‘맑은 자양들’은 겨울 앞에서 호흡과 움직임을 멈추고, 나무 밖의 거대한 힘인 ‘겨울의 힘’에 귀기울이며 때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겨울이 가지고 있는 ‘추위의 난폭한 힘’은 기어코 껍질을 뚫고 들어가 수액 깊이 스며들었다고 합니다. 나무는 그야말로 엄청난 시련을 견뎌낸 것이네요.

수액을 찾아 들어왔던 햇빛과 공기들은
그 자리에서 겨우내 얼었다가
독한 향기와 푸르고 진한 빛으로 익어갔으리라

‘추위의 난폭한 힘’이 스며든 수액을 찾아 들어왔던 ‘햇빛과 공기들’ 역시 그 자리에서 얼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겨울이 지나 봄이 오면서, ‘독한 향기와 푸르고 진한 빛’으로 익어갔을 거예요. 시련의 시간이 지나고 결실을 맺은 것이죠!

해마다 얼마나 많은 잎과 꽃들이
이 무늬를 거쳐 봄에 이르렀을까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해마다 정말 많은 ‘잎과 꽃들이’ 이 나이트의 무늬를 거쳐 봄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점점 시련을 극복한 뒤 결실을 맺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죠?

문틈인지도 직각의 모서리인지도 모르고
지느러미처럼 빠르고 날렵한 무늬들은
가구들 위를 흘러다니고 있다

- 김기택, 「나무」 -

이러한 과정을 거친 ‘날렵한 무늬들’은 가구들 위를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결국 화자가 바라본 것은 ‘가구’였네요. 가구에 남아 있는 나이트의 흔적을 보면서 그 나무가 겪었을 무수히 많은 겨울, 즉 시련을 떠올리고 있는 화자의 모습입니다. 이는 아마 화자 자신이 현재 시련을 겪고 있거나, 시련을 극복한 상황이기도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외부 세계를 자신의 내면세계를 기준으로 인식하는 전형적인 현대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물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 ① 허용 가능성 평가 : 선지의 내용을 ‘허용’하려는 태도를 바탕으로 지문을 ‘독해’하며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허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만 허용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을 개입시키면 안 됩니다.
- ② 현대시 독해 : <보기>의 도움 등을 통해 ‘주제’ 위주로, 그리고 일상 언어의 감각으로 읽어내면 됩니다. 현대시도 읽을 수 있는 하나의 글입니다.
- ③ 수필 독해 : 운문학과 마찬가지로, 글쓰기가 하고자 하는 말인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필이 어렵게 출제될 것을 대비해, 독서 지문을 읽듯이 꼼꼼하게 읽으며 주제를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 해요.

지문 내용 총정리

일상적인 표현들 위주로 제시되어 있어 주제를 파악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고, 선지에서도 그리 깊은 수준의 독해를 요구하지 않았기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다만 22번 문제의 3번 선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지문이었어요. ‘생각 심화’의 내용을 잘 정리해서 어려워질 문학에 대비하도록 합시다.

생각 워크북 <산문문학 해결하기>

2027.06 [28~31] 고전소설 '홍길동전' ☆☆

<보기> 확인

선생님: 고전소설에서는 주인공이 속임수로 상대를 속이는 '속임수담'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속이는 이, 속는 이, 속이는 의도, 속이는 방법, 속임 결과'가 포함돼요. '속이는 방법'은 '속이는 이'가 '속는 이'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가지도록 조작하는 것을, '속임 결과'는 '속이는 의도가 실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를 참고하여, 속임수담이 나타난 장면인 [A]에 대해 이해한 바를 말해 볼까요?

학 생: _____
선생님: 네, 맞아요.

'속임수담'이 나타난다는 내용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사실 '홍길동전'에 속임수가 쓰인다는 걸 모르는 학생은 없을 테니, 가볍게 넘어가도 무방하겠죠?

<보 기>

'홍길동전'에서 주인공의 욕망은 율도국 왕이 되는 사건을 통해 마침내 실현된다. 이 사건은 이본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무능하거나 부패한 왕을 몰아내기도 하고, 안정적으로 나라를 이끌던 왕을 쫓아내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왕이 되려 하는 주인공의 욕망은 작품 속에서 공동체의 소원이자 성군이 폭군을 몰아낸 역사적 사례들과 동격으로, 나아가 하늘의 뜻으로 제시되어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홍길동전'의 내용처럼, 주인공인 '홍길동'의 욕망은 율도국 왕이 되는 사건을 통해 마침내 실현된다고 합니다. 이때 안정적으로 나라를 이끌던 왕을 쫓아내는 방식으로 이 사건의 양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쓰인다고 합니다. 이 방법들을 하나하나 찾으면서 지문을 읽어도 좋겠지만, 큰 틀에서 '안정적으로 나라를 이끌던 율도국 왕을 쫓아내는 방식'으로 욕망을 실현한다는 내용만 생각하고 읽어보도록 합시다.

지문 독해

그날에 길동이 도적을 데리고 분부하여 왈,
“내 금일 절에 가 여차여차하여 모든 중을 결박하거든 너희 등은 그매를 당하여 일을 행하라.”
하니, 모든 도적이 영을 기다리더라. 이때 길동이 수십 종자를 데리고 해인사에 올라가 도중터러 왈,
“전에 백미를 보내어 술과 밥을 갖추라 하였더니 어찌하였는고?”
승려들이 고왈,
“이미 준비하였사오니 처분을 내리소서.”
길동 왈,
“전에 들으니 이 절 뒤의 풍경이 거룩하다 하니, 너희와 더불어 종일 즐기고자 하니 하나도 빠지지 말고 일제히 모이라.”
하니, <승려들이 어찌 이런 흥계를 알리오> 상하노소 없이 다 절 뒤 시내에 벌여 앉으니, 길동이 차례로 권하여 즐기며 웃고 잡담하다가 가만히 소매로부터 모래를 내어 입에 넣어 씹더니, 모래 깨무는 소리에 승려들이 놀라 사죄하거늘, 길동이 왈각 상내어 왈,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너희 등이 나를 쉬이 알고 음식의 부정함이 이렇듯 하니 통탄치 아니하리오.”
말이 끝나자 모든 승려를 일시에 다 결박하라 하며 호령하되,
“내 본관에 들어가 이 연유를 고하고 각별히 엄벌하리라.”
하니, 승려들이 몹시 놀라 넋을 잃고 애걸할 따름이로다.

'길동'이 '도적'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해 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모든 중을 결박할 것인데, 그때 일을 행하라는 것이죠. 뭘 어떻게 하려나 궁금한데, '길동'은 '해인사'로 가서 '노승'을 부릅니다. 자신을 위한 진수성찬이 준비되었냐고 묻고, 준비되었다는 대답을 듣자 중들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불러 함께 절 뒤의 풍경을 즐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 표시한 '서술자의 개입'에서 드러나듯, 이는 모두 중들을 결박하기 위한 '길동'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즐겁게 놀다가, '길동'이 갑자기 소매에서 모래를 꺼내 깨웁니다. 그 소리에 승려들은 놀라 사죄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들이 준비한 음식에서 모래가 나왔다고 생각할 테니, 당연히 미안함과 더불어 두려움이 몰려올 것입니다. '길동'을 위해 진수성찬을 준비할 정도로 '길동'의 위세가 높다는 뜻이니깐요. 이에 '길동'은 화가 난 척을 하며 모든 승려를 일시에 다 결박하라 하며 호령합니다. 승려들에게는 '본관'에 들어가 다 이를 것이라며 겁을 주지만, 사실 이는 '도적'에게 말한 계획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죠? 영문을 모르는 승려들은 그저 놀라 애걸할 따름입니다. 어렵지 않게 공감할 수 있겠네요.

이때에 도적들이 절 어귀에 매복하여 있다가 모든 승려 결박함을 듣고 달려들어 재물을 제 집 재물같이 실어 나르니, 승려들이 다만 눈으로 보며 입으로 소리만 지를 따름일러라.
절의 나무하던 몸이 작은 방에서 그릇을 옮겨 싣다가, 도적이 우마를 가지고 들이닥쳐 창고를 열고 재물을 훔쳐 가는 광경을 보니라. 담을 넘어 도망하여 합천 읍내에 들어가 도적 수백 명이 와 절 재물을 훔쳐 가는 사연을 고하니, 합천 군주가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즉시 관에 딸린 관리들과 읍의 노소 인민을 징발하여 급히 해인사로 몰아가니라.

이때 도적들은 달려들어 재물을 실어 나릅니다. 이것이 '길동'과 '도적'들의 진짜 계획이었던 것이네요. 몸이 묶여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승려들은 그저 입으로 소리만 지를 따름입니다.

이를 목격한 '나무하던 놈'은 '합천 군수'에게 사연을 보고하고, 깜짝 놀란 '합천 군수'는 관리들과 인민을 징발하여 급히 '해인사'로 가 보라고 합니다. '길동'을 잡아야 하니깐요!

이때 도적이 재물을 훔쳐 우마에 싣고 산골짜기 소로로 가려 하거늘, 길동이 이르되,
“조금도 의심치 말고 남쪽 대로로 가라.”
하니, 도적들이 질색 대왈,
“관군이 곧 가까이 쫓아오면 잡힐까 하나이다.”
길동이 크게 웃고 이르되,
“너희는 젖내 나는 어린아이라. 어찌 나의 깊은 소견을 알리오. 두려워 말고 남쪽 대로로 가라. 내 관군을 북쪽으로 가게 하리라.”
도적들이 이 말을 듣고 남쪽 대로로 가거늘, 길동이 도로
[A] 법당에 들어가 <중의 장삼을 입고 송낙을 쓰고> 높은 피

에 올라 보니 관군이 몰려 오거늘, 크게 소리하여 왈,
“저 관군은 도적이 북으로 갔으니 북쪽 소로로 쫓아가
잡게 하라.”
하고 북쪽 소로를 가리키거늘, 관군이 그리로 쫓아가니라.
길동이 그제야 산에서 내려와 가만히 술법을 행하여 먼저
마을 어귀에 돌아오니, 이윽고 도적이 수천 우마를 몰고
들어와 길동을 향하여 머리를 조아리며 사례 왈,
“장군의 신기한 술법과 거룩한 재주는 귀신도 측량치
못하리로소이다.”

길동이 웃어 왈,
“대장부 그만한 재주 없으면 어찌 장사라 칭하리오.”
하고 잔치를 즐긴 후에, 훔쳐 온 재물을 헤아려 본즉 수만금일러라.

그렇게 재물을 훔친 ‘도적’은 산골짜기 소로, 즉 작은길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길동’은 남쪽의 대로, 즉 큰길로 가라고 해요. 잡힐 것
을 염려하는 ‘도적’에게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큰소리를 치면서 말이
죠. 알고 보니 ‘길동’은 <> 표시한 외양 묘사처럼 승려의 복장을 하고서
관군들을 속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속은 관군들은 북쪽의 소로
로 향하고, 도둑들은 ‘길동’의 능력에 감탄하며 남쪽 대로로 안전하게
피신했네요. 내면세계 하나하나 공감하는 것이 어렵지 않죠? 자연스럽
게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쉬울 것입니다.

모든 도적에게 각기 물품을 내려 주고 마을 어귀에 별호를
활빈당이라 칭하고 하령하여 왈,
“조선 팔도로 다니며 불의한 재물을 탈취하고, 가난하여 의지할
곳 없는 자거든 재물 주어 구제하되 성명을 통치 말고, 열읍
수령 중 백성을 착취하여 얻은 자의 재물을 탈취하라.”

이러한 ‘길동’의 행위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을
탈취하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자
연스럽게 ‘해인사’의 승려들은 불의한 자들임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재물을 뺏은 ‘길동’의 행위에 당위성을 부여하려면 그 정도의 설정은 있
어야겠죠?

[중략 부분의 줄거리] 팔도에 혼란을 초래한 길동은 병조 판서를
제수받아 서자로서의 한을 풀고, 활빈당과 함께 조선을 떠난다.

우리가 다 알고 있을 ‘홍길동전’의 내용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팔도에 혼란을 초래한 ‘길동’은 벼슬을 받아 한을 푼 뒤 조선을 떠났다고
해요. <보기>를 읽으면서 생각했듯이, 이제는 아마 ‘울도국’을 정복
하려 하겠죠? 이런 예상을 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차설, 길동이 대의를 두고 일일 연습하니, <무예가 정숙하여
마군이 십만이고 보군이 십만일러라.> 일일은 여러 장수들을
모아 이르되,
“내 들으니 울도국이 살림이 넉넉하고 국세가 대국이나 다름
이 없다 하니, 여러 군사들의 뜻이 어떠하뇨?”
장수들이 응하여 왈,
“소장의 평생 소원이로소이다. 빨리 싸워 성공케 하옵소서.”
길동이 즉시 군사를 일으켜 물밀 듯 쳐들어가니 향하는 곳마다
대적할 이 없더라.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길동’의 활빈당은 계속해서 연습을 거듭합니다. <> 표시한 부분을 일
종의 ‘배경 묘사’ 혹은 ‘외양 묘사’로 본다면, ‘활빈당’의 위세가 어마어마
하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겠죠? 이에 ‘길동’은 ‘울도국’을 정복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장수들은 평생 소원이라며 이에 응합니다. <보기>에
서 말한 대로 울도국 정벌을 공동체의 소원으로 표현하는 모습이에요.
이걸 생각했다면 아주 훌륭합니다.

각설, 수월 만에 칠십여 성을 항복받고 **울도국 왕**에게 격서를
전하니라. 율왕이 뜬어 보니 하였되,
“조선국 활빈당 장수 홍길동은 율왕에게 말하느니, 대저 나라는
한 사람의 그릇이 아니라. 이리하므로 성탕이 걸을 치시고
무왕이 주를 치시니, 예부터 정벌이 천리에 뗏뗏한 일인 고
로, 내 의병을 일으켜 한 북소리에 칠십여 성을 항복받아 위
엄을 뵈나니, 율왕은 빨리 나와 좌우를 결단하라. 만일 항복
하면, 조상 향화를 끊기게 하지 아니하고 자손까지 부귀를 누
리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천명을 거역하는 것이라 옥석을
구별 않고 모두 치치할 것이니, 재삼 생각하여 하라.”
하였더라.

왕이 문무제신을 모아 의논하여 왈,
“무명 소적이 이렇듯 방자하니, 뉘 능히 내 근심을 덜리오?”
하되, **제신**이 아뢰어 왈,
“대왕이 한때의 분을 일으켜 대적했다가 도리어 패하오면 후
세에 부끄러움을 면치 못하오려니와, 성을 굳게 닫고 나가지
아니하시면 제 스스로 물러갈까 하나이다.”
왕이 **크게 노하여** 왈,
“적병이 성 아래까지 미쳤거늘 어찌 저희 스스로 물러가기를
기다리리오.”
하고 군사를 징발하여 친히 대적하더라.

- 「홍길동전」 -

파죽지세의 활빈당은 ‘울도국’을 차례차례 정복해갑니다. 이에 ‘길동’은
‘울도국 왕’에게 격서를 보내 항복하라 하고, ‘울도국 왕’은 문무제신을
모아 의논합니다. 이때 ‘제신’, 즉 여러 신하들은 성을 굳게 닫고 나가지
않으면 스스로 물러날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두려
움’이라는 감정을 읽어내야 해요. 두려우니 싸우지 말고 버티자는 말을
하는 것이죠. ‘발화의 근거’를 생각하며 자연스럽게 ‘두려움’이라는 내면
세계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울도국 왕’의 생각은 다릅니다. 크게 노한 그는 싸우자는 이야
기를 하고, 군사를 징발하여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길동’을
두려워하는 신하들의 마음과, 이에 화가 난 ‘울도국 왕’의 마음에 모두
공감할 수 있겠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문을 읽어야 합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4%	9%	76%	6%	5%

28. ㉠,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내 금일 절에 가 ㉠ 여차여차하여 모든 중을 결박하거든 너희
등은 그때를 당하여 일을 행하라.”

답을 넘어 도망하여 합천 읍내에 들어가 도적 수백 명이 와 절
재물을 훔쳐 가는 ㉡ 사연을 고하니,

- ㉠은 '해인사'의 재물을 훔치려는 '길동'의 계획이고, ㉡은 이를 목격한 이가 설명한 내용입니다. 가볍게 해결해봅시다.

- ① ㉠에는 길동이 승려들을 모이게 하는 것이 포함되어있군.
- ② ㉠에는 길동이 모래를 깨무는 것이 포함되어있군.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두 선지 모두 ㉠의 내용 그 자체죠?

- ③ ㉠에는 길동이 승려들을 본관에 고발하는 것이 포함되어있군.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건 승려들을 속이는 과정이지.
해설	'길동'이 승려들을 본관에 고발하겠다고 하는 건 승려들을 속이기 위한 말일 뿐이지, 진짜 고발하는 것이 계획의 일부인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승려들의 재물을 훔치려고 하는데 자신이 먼저 나서서 본관의 관심을 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질 않죠?

- ④ ㉡에는 도적들이 절에 들이닥친 일이 포함되어있군.
- ⑤ ㉡에는 도적들이 재물을 실어 나른 일이 포함되어있군.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두 선지 모두 ㉡의 내용 그 자체네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4%	14%	58%	22%	2%

29.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 해인사 / ㉡ 설

- ㉠과 ㉡ 모두 '길동'에 의해 피해를 입은 곳입니다. ㉠은 재물을 빼앗겼고, ㉡는 해당 공간 자체가 공격당하고 있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볍게 해결해봅시다.

- ① ㉠은 ㉡와 달리,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곳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둘 다 잘 살지.
해설	'길동'과 '도적'들이 재산을 훔쳐갈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근거로 하면 ㉠이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곳이라는 점은 충분히 허용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가 있는 울도국 역시 살림이 넉넉한 곳이라는 서술이 나왔었죠? 이는 '길동'이 울도국을 정복하려는 직접적인 계기이기도 하구요. 이러한 내용들을

	근거로 하면 두 곳 모두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곳이라고 해야 맞겠네요.
--	--

- ② ㉠은 ㉡와 달리, 외부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누구?
해설	울도국을 군사적으로 돕는 외부 세력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가볍게 지워낼 수 있어야 해요.

- ③ ㉠은 ㉡와 달리, 문서로 외부와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격서!
해설	㉠은 '길동'이 별다른 문서 없이 그냥 피를 내는 방식으로 갈등이 빚어졌지만, ㉡에서는 '격서'라는 문서를 통해 '길동'이라는 외부와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죠? 가볍게 답으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 ④ ㉠과 ㉡는 모두, 외부인이 공간 자체를 탈취하려 하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에서는 재물만 훔쳤는데?
해설	㉠에서는 '길동'이라는 외부인이 재물만 훔쳤습니다. '해인사' 자체를 탈취하려고 한 적은 없으니 이를 근거로 허용할 수 없는 선지네요. 물론 ㉡는 '길동'이라는 외부인이 탈취하려 하는 공간 자체라고 할 수 있죠.

- ⑤ ㉠과 ㉡는 모두, 구성원 사이에 위계가 없이 평등한 사회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왕이 있는데?
해설	㉠에서는 구성원 사이의 위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는 애초에 '왕과 신하'라는 위계가 명확히 드러나는 공간이죠? 이를 근거로 허용할 수 없는 선지입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11%	9%	7%	69%	4%

30. 다음은 수업 활동의 일부이다. 학생의 답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

- ① 길동이 안심할 수 있는 장소로 도적들과 재물을 안전하게 보내려 하는 것은 '속이는 의도'로 볼 수 있어요.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길동'은 안심할 수 있는 장소인 '남쪽 대로'로 도적들과 재물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관군들을 속였습니다. 당연하게 허용할 수 있네요.

FAQ

Q : 안심할 수 있는 장소로 도적들과 재물을 옮긴 건 '속인 결과'로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A : 선지도 하나의 문장입니다. 즉, 정확하게 독해할 수 있어야 해요. 이 선지는 도적들과 재물을 안전하게 '보내려' 하는 것에 대해 묻고 있어요. '보내려'라는 표현에 애초에 '의도'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 선지는 맞는 선지가 됩니다. 이 선지를 5번 선지와 비교해 보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 ② 길동이 승려의 차림으로 높은 곳에서 관군을 향해 소리친 것은 '속이는 방법'으로 볼 수 있어요.
③ 길동이 도적들의 도주 방향에 대하여 관군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준 것은 '속이는 방법'으로 볼 수 있어요.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둘 다 방법이지.
해설	승려의 차림으로 관군을 향해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며 소리치는 것은 '길동'이 '관군'을 '속이는 방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죠?

- ④ 길동이 자신이 산에서 내려가는 것에 대하여 관군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준 것은 '속이는 방법'으로 볼 수 있어요.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산에서 내려가는 것에 대한 정보를 준 적은 없지.
해설	'길동'은 자신이 산에서 내려가는 것에 대하여 관군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근거가 없으면 허용할 수 없죠.

- ⑤ 길동의 속임수에 관군이 넘어가 도적들과 재물이 안심할 수 있는 장소에 이른 것은 '속인 결과'로 볼 수 있어요.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속인 결과 안전해진 거지.

해설	역시 선지 그 자체로 허용할 수 있겠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	-------------------------------------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7%	6%	7%	8%	72%

3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⑤

- ① 길동이 '국세가 대국이나 다름이 없'는 울도국 정벌을 단행하는 것에서, 주인공이 안정적인 나라를 침략하여 욕망을 실현하려 함을 알 수 있군.

"내 들으니 울도국이 살림이 넉넉하고 국세가 대국이나 다름이 없다 하니, 여러 군사들의 뜻이 어떠하뇨?"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리고 있네.
해설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울도국을 정벌하려는 모습은 <보기>에서 말한 욕망 실현의 모습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죠?

- ② 길동이 정벌에 대한 여러 군사들의 뜻을 묻자 장수들이 '평생 소원'이라 응하는 것에서, 주인공의 욕망이 공동체의 소원에 부응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장수들이 응하여 왈,
"소장의 평생 소원이로소이다. 빨리 싸워 성공케 하옵소서."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미리 생각한 내용이네.
해설	미리 생각한 내용 그 자체죠? '길동'뿐 아니라 활빈당 공동체 전체의 소원인 것으로 명분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 ③ 길동이 '대저 나라는 한 사람의 그릇이 아니라'며 '성탕'과 '무왕'의 일을 인용하는 것에서, 주인공이 내세운 정벌의 명분이 역사적 사례와 동격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대저 나라는 한 사람의 그릇이 아니라. 이러하므로 성탕이 걸을 치시고 무왕이 주를 치시니, 예부터 정벌이 천리에 떳떳한 일인 고로, 내 의병을 일으켜 한 북소리에 칠십여 성을 항복 받아 위엄을 뵈나니, 율왕은 빨리 나와 좌우를 결단하라.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러네.

해설	‘성탕’과 ‘무왕’이라는 역사적 사례와 ‘길동’의 정벌을 동격으로 내세우며 울도국 정벌의 명분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역시 어렵지 않게 허용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	--

- ④ 길동이 자신에게 ‘항복’하지 않는 것은 ‘천명’을 거역하는 일이라고 울도국 왕에게 주장한 것에서, 주인공의 정벌에 하늘의 뜻이라는 정당성이 부여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만일 항복하면, 조상 향화를 끊기게 하지 아니하고 자손까지 부귀를 누리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천명을 거역하는 것이라 옥석을 구별 않고 모두 처치할 것이니, 재삼 생각하여 하라.”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러네.
해설	‘항복’하지 않는 것은 ‘천명’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주인공의 정벌에 하늘의 뜻이라는 정당성이 부여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쥬? 역시 당연하게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 ⑤ 길동이 울도국 왕에게는 ‘무명 소적’이지만 ‘문무제신’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인 것에서, 왕이 되려 하는 주인공의 욕망이 마땅하다는 인식이 울도국에서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왕이 문무제신을 모아 의논하여 왈,
“무명 소적이 이렇듯 방자하니, 뉘 능히 내 근심을 덜리오?”
하되, 제신이 아뢰어 왈,
“대왕이 한때의 분을 일으켜 대적했다가 도리어 패하오면 후세에 부끄러움을 면치 못하오려니와, 성을 굳게 닫고 나가지 아니하시면 제 스스로 물러갈까 하나이다.”
왕이 크게 노하여 왈,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왕은 화가 났는데 뭘 마땅해.
해설	‘울도국 왕’은 ‘길동’을 ‘무명 소적’, 즉 이름이 없는 작은 적으로 표현하며 무시합니다. 하지만 ‘문무제신’은 ‘길동’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고 싸우지 말자는 의견을 냈어요. 이를 들은 ‘울도국 왕’은 화가나 직접 군사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였쥬? 이러한 ‘울도국 왕’의 내면세계를 근거로 하면, 왕이 되려 하는 ‘길동’의 욕망이 마땅하다는 인식이 울도국에서 확산된다는 것은 절대 허용할 수 없겠습니다. 결국 내면세계에 정확히 공감하고 있는지 묻는다는 점에서는 전형적인 소설의 <보기> 문제였네요.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① 허용 가능성 평가 : 선지의 내용을 ‘허용’하려는 태도를 바탕으로 지문을 ‘독해’하며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허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만 허용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을 개입시키면 안 됩니다.

② 소설 독해 : ‘심리와 행동의 근거’를 바탕으로 인물에게 ‘공감’하며 읽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물흐르듯 이어지면 지문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지문 내용 총정리

전반적인 줄거리를 잘 알고 있는 ‘홍길동전’이 나오기도 했고, 인물의 내면세계가 평면적으로 단순하게 제시되어 공감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기에 쉽게 답을 골랐어야 하는 지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느꼈다면 아직 문학 실력이 많이 부족한 것이니 긴장하도록 합시다.

생각 워크북 <운문문학 해결하기>

2027.06 [32~34] 고전시가 '만전춘별사 / 시름을 꺼내 들어 ~ / 임오란 회양 금성 오리나무 되고 ~' ☆

<보기> 확인

— <보 기> —

이 시가들은 모두 참신한 발상에서 비롯된 형상화 기법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각 화자는 현실에서는 바꿀 수 없는 상황을 주관적 인식을 통해 변화시키고자 하고, 심적 상태를 형체가 있는 사물로 전환하여 정서를 강화한다. 또 인간 간의 관계를 유사한 속성을 가진 대상에 빗대기도 하는데, 여기에 정보를 덧붙이거나 특정한 상황을 추가하여 화자의 처지를 강조한다.

다양한 방식의 '참신한 발상'에서 비롯된 형상화 기법을 통해 화자의 정서, 즉 내면세계를 드러낸다는 내용입니다. 정확히 어떤 내면세계가 드러나는지, 다시 말해 어떤 주제를 가진 작품인지에 대해서는 알려 주지 않네요. 자세한 건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실전적 지문 독해

(가)

얼음 위에 맺일 자리 보아 임과 나와 얼어 죽을망정
얼음 위에 맺일 자리 보아 임과 나와 얼어 죽을망정 [A]
정 둔 오늘 밤 더디 새오시라 더디 새오시라

경경 고침상*에 어느 잠이 오리오
서창을 열어하니 도화가 발하도다 [B]
도화는 시름없어 소춘풍*하도다 소춘풍하도다

넋이라도 임과 한테 지내겠다고 여겼더니
넋이라도 임과 한테 지내겠다고 여겼더니 [C]
어기신 이가 뉘러시니잇가 뉘러시니잇가

- 작자 미상, 「만전춘별사」 -

*경경 고침상: 근심에 싸여 있는 외로운 잠자리.

*소춘풍: 봄바람을 회롱함.

임과 정을 둔 '오늘 밤'은 더디게 지나가길 바라고, 근심 가득한 외로운 잠자리에선 잠이 안 오고, 임과 함께 지내려고 하는데 임이 그 맹세를 여겼다면 원망하는 심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면세계' 위주로 가볍게 읽어주시면 충분해요.

(나)

시름을 꺼내 들어서 푸른 강물에 띄우면 절로 삭을 것이라는 인식이
푸른 강물에 풍덩 들입다 띄워 두면
자연히 이리저리 떠다니다 절로 삭으리라 - 김수장 -

'시름'을 꺼내 들어서 푸른 강물에 띄우면 절로 삭을 것이라는 인식이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길어도 짧고 내용도 어렵지 않기에 이 정도로만 읽어도 문제를 풀기에는 부족함이 없겠네요.

(다)

임오란 회양 금성 오리나무 되고 나는 삼사월 칠녕쿨이 되어
그 나무에 그 칠이 남거미 나비 감듯 이리로 칭칭 저리로 칭칭
외오 풀어 옮겨 감아 엮어지고 틀어져 밑부터 끝까지 조금도 빈틈
없이 찬찬 굵이 나게 휘휘 감겨 주야장상 뒤틀어져 감겨 있어
동 선달 바람 비 눈 서리를 아무리 맞은들 떨어질 줄 있으랴
- 이정보 -

임은 '오리나무'가 되고, 화자는 '삼사월 칠녕쿨'이 되어 떨어지지 않고 늘 함께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가)와 유사한 주제를 가진 작품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5%	12%	6%	5%	72%

32. [A]~[C]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① [A]에서 화자는, 임과 함께하고 싶은 공간의 조건을 제시하며 그것이 갖춰지기를 기원하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저런 극한의 환경도 좋다는 거지.
해설	[A]를 독해해보면, '얼음 위에 맺일 자리'처럼 극한의 환경에서 얼어 죽더라도 임과 함께라면 좋다는 내면세계가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임과 함께하는 시간 자체를 원하는 것이지 저런 극한의 조건이 갖춰지기를 기원한다는 건 절대 허용할 수 없겠죠.

② [B]에서 화자는, 창문을 매개로 하여 자신의 속마음을 임에게 전달하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무슨 속마음?
해설	[B]에서 화자는 그저 '서창'을 열어 '도화'를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임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전하는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③ [C]에서 화자는, 임이 자신의 믿음을 저버린 이유가 변함없는 사랑을 강요한 자신 때문이라며 자책하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임을 탓하는 건데?
해설	[C]에서 화자는 임과 넋이라고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이걸 어긴 게 누구냐며 임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면 자책한다는 건 절대 허용할 수 없죠.

④ [A]와 달리 [C]에서 화자는, 임파의 이별로 인해 홀로 남겨진 슬픔을 극복하고 소망을 이루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전혀 극복 못했는데?
해설	[C]에서 화자는 그저 임을 원망하고 있을 뿐, 자신의 슬픔을 극복하고 소망을 이루려는 의지를 표출하지는 않습니다. 철저하게 '화자의 내면세계'라는 주제 위주로 문제가 해결되는 느낌이죠?

⑤ [A]에서 화자는 춥더라도 만족할 수 있음을, [B]에서 화자는 봄을 맞고도 만족할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추위도 임과 함께라면 만족이고, 봄이 와도 임이 없으면 슬프지.
해설	[A]에서 화자는 추운 극한의 환경에서도 임과 함께라면 만족스러우니 '정 둔 오늘 밤'이 더디게 지나 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한편 [B]에서는 '도화'가 핀 봄을 맞더라도 임이 없는 '경경 고침상'에서는 잠이 오지 않는다는 내면세계를 보이고 있죠? 독해한 결과 그대로를 근거로 하여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2%	3%	5%	24%	66%

33.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⑤

- '시름'을 꺼내 강물에 던져 버리겠다는 말을 하며, 시름이 없는 상태를 지향하는 내면세계를 주제로 하는 (나)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주제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① 행위를 드러내는 표현인 '꺼내 들어 얽어 매고 둘러 묶어'를 통해 행동의 연속적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연속적이네.
해설	꺼내고 얽어 매고 둘러 묶는 과정, 행동의 연속적 과정 그 자체죠?

② 색채 표현인 '푸른'을 통해 시적 공간의 이미지를 시각화하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러네.
해설	'푸른'이라는 색채 표현을 통해 '강물'이라는 시적 공간의 이미지를 시각화하고 있습니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③ 음성 상징어인 '퐁당'을 통해 대상의 무게감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러네.
해설	'퐁당'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무게감이 충분히 느껴지죠? 가벼운 걸 강물에 던지면 '퐁당' 소리가 나지 않으니깐요.

④ 상황을 가정한 표현인 '띄워 두면'을 통해 대상을 화자와 분리된 상태인 것처럼 제시하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강물에 띄워 뒀으면 화자와 대상이 분리되지.
해설	'띄워 두면'은 상황을 가정한 표현이 맞고, 이러한 표현을 통해 '시름'이라는 대상이 화자와 분리된 상태인 것처럼 표현한다는 것도 당연하게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근본적으로 설명하면, '시름'과 떨어져 있는 상태를 지향한다는 것이 '주제'이기 에 이러한 상황을 가정하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⑤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지 않는 표현인 '이리저리'를 통해 화자의 우유부단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시원하게 시름 던져 버렸는데 뭐가 우유부단해.
해설	'이리저리'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지 않는 표현은 맞지만, 이는 '시름'이 강물을 따라 흘러간다는 표현이지 화자의 우유부단한 태도를 드러내지는 않죠? 오히려 화자는 '시름'을 시원하게 강물에 던져 버리는 강단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주제를 바탕으로 하면 너무나 간단하게 답으로 고를 수 있는 선지네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4%	4%	12%	75%	5%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④

① (가)에서 '임'과 '정'을 나누는 '밤'이 '더디'게 흐르기를 원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은, 시간의 흐름을 주관적 인식을 통해 변화 시키고자 하는 소망에서 비롯한 것이군.

얼음 위에 맺일 자리 보아 일과 나와 얼어 죽을망정
얼음 위에 맺일 자리 보아 일과 나와 얼어 죽을망정
정 둔 오늘 밤 더디 새오시라 더디 새오시라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시간이 천천히 흐르길 바라는 마음이지.
해설	미리 독해한 것처럼, 화자는 '임'과 '정'을 나누는 '밤'이 천천히 흘러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는 시간의 흐름, 즉 <보기>에서 말한 '현실에서는 바꿀 수 없는 상황'을 '주관적 인식(=내면세계)'을 통해 변화시키고자 하는 소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죠.

② (나)에서 시적 대상을 '강물'에 '떠다니'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심적 상태를 형체가 있는 사물로 형상화한 것이군.

시름을 꺼내 들어 얽어 매고 둘러 묶어 푸른 강물에 풍덩 들입다 띄워 두면 자연히 이리저리 떠다니다 절로 삭으리라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시름이 떠다닌다는 건 실체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거네.
해설	<보기>에서 말한 것처럼, (나)의 화자는 '시름'이라는 심적 상태이자 시적 대상을 '강물'에 '떠다니'는 형체가 있는 사물로 전환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름'이 있다는 자신의 경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③ (다)에서 '침녕쿨'을 만물이 소생하는 '삼사월'의 것이라고 제시한 것은, 시적 대상과 관련한 정보를 덧붙여 자신이 소망하는 상태를 강조한 것이군.

임으란 회양 금성 오리나무 되고 나는 삼사월 침녕쿨이 되어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만물이 소생한다는 정보를 덧붙인 거라고 볼 수도 있겠구나.
해설	<보기>에서 말했듯이, (다)의 화자는 자신과 임의 관계를 유사한 속성을 가진 '오리나무와 침녕쿨'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신을 비유한 '침녕쿨'은 '삼사월'의 것이라고 제시했는데, 이 시기는 선지가 말하는 것처럼 '만물이 소생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이는 <보기>에서 말한 것처럼 '정보를 덧붙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보기>도 선지 판단의 근거로 활용하는 태도가 갖춰져 있다면 어렵지 않게 지워낼 수 있었을 거예요.

④ (가)에서 '소춘풍'하는 '도화'와 대비되는 것으로, (다)에서 '나비'를 감는 '납거미'에 빗대는 것으로 화자의 상태를 제시한 것은, 특정한 상황으로 임과 하나가 된 현재를 강조한 것이군.

경경 고침상*에 어느 잠이 오리오 서창을 열어하니 도화가 발하도다 도화는 시름없어 소춘풍*하도다 소춘풍하도다 *경경 고침상: 근심에 싸여 있는 외로운 잠자리. *소춘풍: 봄바람을 희롱함.
--

그 나무에 그 칩이 납거미 나비 감듯 이리로 칭칭 저리로 칭칭 외오 풀어 윙게 감아 얽어지고 틀어져 밑부터 끝까지 조금도 빈틈 없이 찬찬 굵이 나게 휘휘 감겨 주야장장 뒤틀어져 감겨 있어
--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가)의 화자는 임과 떨어진 상황인데?
해설	(가)의 화자는 '경경 고침상'에서 잠에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과 떨어져 있기에 그런 것이죠? 이를 근거로 하면, '임과 하나가 된 현재'를 강조한다는 말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겠습니다. 임과 하나가 되지 못한 자신의 우울한 처지를 아름답게 피어 있는 '도화'와 대비시켜 표현한 것이예요. 한편, '납거미'가 '나비'를 감는 것으로 임과 화자 자신의 관계를 비유한 (다)는 '임과 하나가 된 현재' 그 자체를 표현한다고 할 수 있겠죠? 주제 그 자체이니 (다) 부분은 가볍게 허용할 수 있어야 해요.

⑤ (나)에서 '시름'이 '절로 삭'을 것이라고, (다)에서 '나'가 '칩'이 되어 '임'과 계속 '감'겨 있고 싶다고 표현한 것은, 참신한 발상에서 비롯된 형상화 기법을 보여 준 것이군.

시름을 꺼내 들어 얽어 매고 둘러 묶어 푸른 강물에 풍덩 들입다 띄워 두면 자연히 이리저리 떠다니다 절로 삭으리라

그 나무에 그 칩이 납거미 나비 감듯 이리로 칭칭 저리로 칭칭 외오 풀어 윙게 감아 얽어지고 틀어져 밑부터 끝까지 조금도 빈틈 없이 찬찬 굵이 나게 휘휘 감겨 주야장장 뒤틀어져 감겨 있어
--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참신하긴 하네.
해설	'시름'을 삭는 것, 즉 형체가 있는 사물로 표현한 것이나, '임'과의 관계를 유사한 속성을 가진 '칩'이 감겨 있는 모습으로 표현한 것은 모두 <보기>에서 말한 것처럼 '참신한 발상에서 비롯된 형상화 기법'을 사용한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가볍게 허용할 수 있겠네요.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① 허용 가능성 평가 : 선지의 내용을 '허용'하려는 태도를 바탕으로 지문을 '독해'하며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허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만 허용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을 개입시키면 안 됩니다.

② 고전시가 독해 : 겁먹지 않고, 현대시를 읽듯이 읽어내면 됩니다. 현대시와 마찬가지로, <보기>의 도움 등을 통해 '주제' 위주로 가볍게 읽어내면 되는 거예요. 자세한 해석은 선지가 해 줄 겁니다!

지문 내용 총정리

주제도 명확하고, 선지도 어렵지 않아서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핵심은 결국 '주제 중심 독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다시 정리해봅시다.